



시민제작

수원시평생학습관 2013 심포지엄

시민이 만드는
일상의 학습,
교육의 경계를
허물다

2013. 4. 25. 목 오후2시
수원시평생학습관 대강당

일상학습

주최  수원시평생학습관
Suwon Lifelong Learning Center

후원  휴먼시티수원  희망저지작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명문산학연  수원시센터

■ 차례

- 3 인사말
- 4 기초발제
- 23 주민이 만드는 일상의 학습, 동네학습 **똑똑도서관**
- 35 학습의 새로운 수요와 공급, 학습협동조합 **지혜로운학교(U3A 서울)**
- 49 지혜와 사람의 연결, 온라인 경험 공유 플랫폼 **위즈덤**
- 63 제도권 평생학습 패러다임의 변화, 시민주도 평생학습 **누구나학교**
- 91 마을 전체가 캠퍼스, **일본 시부야대학**

시민이 만드는 일상의 학습, 교육의 경계를 허물다

정성원 · 수원시평생학습관장

전국 각지에서 각양각색의 강좌가 열리고 있지만 그 속에서 시민은 그저 수동적 소비자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타율적, 수동적 교육에서 벗어날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학습의 참여를 넘어 시민이 스스로 학습을 주도하는 시대로 이행하고 있음을 학습과 삶의 현장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필요한 학습을 기획하고 조직하며, 저마다 삶 속에서 체득한 지식과 지혜와 재능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사회, 눈부신 학습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수원시평생학습관 2013 심포지엄」 “시민이 만드는 일상의 학습, 교육의 경계를 허물다”에서는 함께하는 배움과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연대의 가능성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시작단계이긴 합니다만 시민주도 학습이 갖는 의미와 전망을 객관적으로 짚어 볼 것이며 각기 다른 이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생생한 사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개인의 빼어난 지식과 세련된 교양을 넘어 서로의 삶 속으로 접속되는 배움은 우리의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드는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시민이 주도가 되는 평생학습사회를 만들어가는 시작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 4월

교육의 경계를 허무는 시민의 힘: 가능성에서 일상으로

정민승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I. 교육의 다양한 경계들: 비생명성의 고착화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들으면 두 가지 이미지가 떠오른다. 하나는 랭그랑의 ‘수직적-수평적 통합’에서 유추할 수 있는 좌표평면이고, 다른 하나는 들로어의 ‘평생교육의 네 기둥’으로 만들어진 신전이다. 좌표평면은 사람들이 자신의 좌표를 찍고, 남들과 비교해보거나 자신의 미래좌표를 찍어 보는데 유용하다. 랭그랑이 의도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랭그랑이 제시한 평생교육 개념으로, 모든 사람들은 학습자로서 자신의 나이와 사회적 역할에 따라 좌표를 찍어볼 수 있게 되었다. 어떤 좌표에 있더라도 그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사회야말로 이상적인 학습사회가 아니겠는가. 랭그랑의 ‘통합’ 개념은 기존의 ‘분화’를 발전으로 보는 교육학의 기본시각에 근본적인 파격을 가했다.

들로어의 네 기둥 역시 학습개념 전환의 계기를 제공한다. 아시다시피, 평생교육의 네 기둥은 알기 위한 학습, 행동하기 위한 학습, 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이다. 모두 가치로운 개념처럼 보인다. 하지만 보기보다 쉬운 개념은 아니다. ‘존재’를 위해 학습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행동하기 위해서 학습한다는 것은 아는 것을 실천한다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이전의 학습은 더불어 살기 위한 학습이 아니었는가? 기존의 학습이 지식의 축적을 위한 학습임을 인정하면, 이 네 가지 기둥은 기존의 학습의 개념을 전복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우리사회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은 앎과 행동을 분리시키며,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지 않으며, 존재보다는 소유에 집착하며, 아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고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현대사회에서의 학습은 학습의 본래적 가치를 잃고 있으며, 그래서 삶-앎-존재-공유의 가치를 회복하는 과정으로서의 평생학습이 더욱 강조되는지도 모른다. 평생교육은 소외되고 분절된, 소유에 집착하고 경쟁적인 삶을 바꾸기 위한 코드의 재설정 작업인 것이다.

랭그랑과 들로어를 위와 같이 해석하면, 평생교육은 ‘교육-문화코드를 바꾸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이나 문화의 코드를 바꾼다는 말은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인간-사회의 정

체성 형성 영역을 다루는 근원적 차원의 의미를 갖는다. 하버마스 혹은 웰턴의 말을 빌면 (Welton, 1995), 국가나 기업에 의해 강요된 '체계(system)'의 논리가 우리의 일상까지 밀고 들어와 개개인의 욕망에까지 침투해 있는 상황이 근대의 현실이며, 바로 그런 이유로 경제나 사회 구조적 차원의 변혁만으로는 사회가 변화하기 어렵다. 식민화된 개개인들이 '생활세계(life-world)'를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사회는 그 짜임의 '코드'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경계'도 이런 차원에서 해석되는 것이 필요하다. 체계의 문화코드는 '닫힌 경계'를 기반으로 작동한다. 물론, 모든 유기체는 경계를 가진다. 경계가 없으면 차이도 없고, 발전도 없다. 그러나, 경계가 너무 강하면 유기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어떤 유기체도 에너지를 외부에서 유입할 수 있어야 생존가능하기 때문이다. 광합성이나 삼투압을 할 수 없는 잎을 가진 식물은 곧 죽고 만다. 그래서 생명체의 경계에는 언제나 구멍이 있고, 외부와의 교신장치가 있기 마련이다.

체계의 경계는 구멍이 없다. 생명체가 아닌 '완벽'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국가 관료제의 삼각 구도에는 빈틈이 없다. 기업의 운영도 완벽을 추구한다. 돈의 법칙은 냉혹하다. 승-패를 가르는 경쟁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 국가나 기업 등 '체계의 경계'는 기본적으로 외부에 대하여 닫힌, 자체적으로 완전한 체제를 지향하는 셈이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이라는 '생명'과는 일정한 거리를 가진다. '완벽한 인간'이라는 말을 떠올려보자. 인간미가 느껴지는가? 인간이 완벽하다는 것은 이미 인간으로서의 어떤 부분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완벽하지 않을 때에만 완벽한 것이 생명체 경계의 법칙이다. 완벽 혹은 완전성은 '근대 인간'의 지향성이다. 신을 닮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완전성에 대한 희구를 낳았다. '진리', '이성', '불변', '영원', '완전'은 짝말로 연결된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옳음으로 나아가는 것. 기계의 완전성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근대의 특징이다.

속도와 동작에 있어 인간보다 더욱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기계, 그리고 그 기계들을 총체적으로 조합하는 공장체제, 날마다 일상생활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상품들. 역사의 전 기간에 걸쳐 물자의 빈곤과 비능률에 시달려 온 인류가 이러한 기술 발달 속에서 유토피아적 가능성을 발견한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끝없는 자기 혁신을 통해 발전을 도모해 온 모더니즘의 승리처럼 간주되었다. 기계에 대한 숭배는 국가체제에도 적용되었다. 국가 역시 기계를 이상적 모델로 간주하였다. 관료주의는 합리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삼는다는 점에 있어서 기계와 다를 바 없었다. 과학을 통한 자연의 지배에 성공한 데 지나치게 고무되어, 사람들은 모든 사회 조직에도 그와 같은 이성의 내적 논리, 즉 보편성, 객관성, 자율성의 논리를 적용하게 되었다.

경계도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다. 학교를 보자. 학교는 여타 생활공간과의 경계를 출발선으로 삼는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일상과 분리된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학교는 교문과 교실로 가시화한다. 이는 곧 학습과 일상간의 경계를 의미한다. 수업을 보면, 과목간의 경계, 놀이와 앎의 경계가 분명하다. 분과학문간의 경계는 근대학문체계의 근간이기도 하려니와, 학교에서는 이런 학문을 진리로 보고, 그 진리를 효율적으로 잘 전달하는 것을 소명으로 삼는다. 아는 것은 정당화된 지식으로 국한되고, 놀이와 앎도 강한 경계로 분리된다.

가장 강한 경계는 교사와 학생간에 그어진다. 주지하듯이, 교사는 '지식이라는 진리'를 전달

하는 자이고, 학생은 그 진리를 받아들여 체화해야하는 수동적 존재이다. 사실, 교사와 학생간의 경계가 무너지면, 현재와 같은 학교는 존립이 불가능하다. 교사라는 위상 안에 지식관과 교육관이 모두 녹아있기 때문이다. 프레이리, 일리치, 지루 등 여러 비판적인 학자들이 지적한 것과 같이, 교사의 설명식-주입식-일방향적 교육은 단지 하나의 교육방법이 아니라, 학생-민중-피억압계급을 무력화시키는 적극적 과정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에서의 경계, 특히 학습자와 교육자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각종 실천은 곧바로 사회변화와 연결된다.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으로 정체성을 구성하며, 그 경험의 핵심은 반복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오늘 살펴볼 사례들은 이런 경계를 허무는 ‘생활세계의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다.

II. 경계에 대한 도전들: 사회운동과 학습운동

철학적으로 운동이란, 대립물의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모순의 변증법적 진전과정으로서, 변화하지 않는 것들을 변화하게 하는 추동체로 간주된다(Fiedler, 2007). 모든 실재에 있어, 대립물의 통일은 상대적이고 그 투쟁이 절대적이며, 통일을 유지하고 있는 모순이 부단히 해결되면서 또 다시 새로운 통일을 만들어 내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부단히 발전해 가는 것이다. 사회운동도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경계들, 주로는 사회경제적인 경계를 바꾸어내는 발전의 동인자다. 사회적 관행이나 경계를 넘나들고 변화시켜 사회의 역동을 재창출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지배가 정태적인 구조를 안정화하는 과정이라면 저항은 그 구조를 유연화한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사회운동이 그런 기능을 담당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사회주의 국가의 사례들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소위 ‘저항세력’은 대부분 권력을 가진 후 급격하게 보수화되었으며, 지배-피지배의 경계는 큰 차이 없이 존속되었다. 운동이 제도권내로 편입되는 경우 그 역동성을 잃고 제도화되며, 제도화는 다시 운동을 억압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다. 예컨대 노동운동이 조직화되어 노동조합운동이 되면, 제도화된 노동조합을 목표로 삼게 되고, 곧이어 조합에 의한 자생적 운동에 대한 억압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에서 일리치는 모든 제도화하는 장치들에 대해 비판을 하였고, 잉겔하트는 운동과 제도를 대척점에 배치했던 것이다.

교육이 작동하는 방식도 유사하다.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제도화되면 삶과 연관된 싱싱한 배움이 억압된다. 가장 강력한 제도로서의 교육은 학교로, 학교는 체계의 생리를 구현하는 사회조직 가운데 대표격이다. 때로는 자본 중심의 현실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엔진으로까지 비판받기도 한다. 아이들이 왜 스펙이 중요하다고 느끼는가? 학교에서의 하루하루가 경쟁에서의 승리를 최상의 목표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학교의 교육은 철저히 시험을 위해 복무하고, 교사는 평가자이며, 과정과 상관없이 결과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정체성이 형성되고 마음이 자라나는 시기에, 아이들은 “인생은 초등학교 4학년에 결정된다”는 협박을 받으며 움추러든다. 어떤 구속도 없이 노닐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마음이 자라는 법인데, ‘헬리콥터 맘’은 그 공간을 빼앗는다. 사실 엄마들은 마음의 공간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아이의 시간을 자신이 결정하는 것은 아이의 자율성을 박탈하

는 중대한 인권유린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 “일단 안도감을 제공해주기” 때문이고, “불안감을 떨쳐낼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한겨레 2012. 6.4).

『평생교육론』의 첫 장에는 언제나 평생교육의 ‘유형’이 나와있다. 형식교육-비형식교육-무형식교육. 이때의 형식교육은 학교를 말한다. White(1987)가 말했듯, 내용을 희생시킨 형식의 고착은 학교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다. 교사는 물론이고 학생도 일정한 규정이 적용된다. 배우는 과목과 시간, 시험과 과제도 모두 틀이 있다. 수업시간에 탄소리는 해도 되지만, 수업시간 자체를 마음대로 편성하면 안된다. 능력없는 교사는 용인되지만, 자격증 없는 교사는 고용해선 안된다. 내용보다 형식에 대한 규정이 훨씬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체계’의 문화코드다.

이렇게 ‘형식’을 강조하는 것은 그 형식이 보장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알튀세식으로 말하자면, 학교는 국가적 정체성을 공유한 국민을 키워내는 국가기구(State Apparatus)이고, 보울즈와 긴티스의 연구가 밝힌 것처럼, 학교는 자본주의의 재생산을 보장하는 단위이다. 개인의 온전한 성장이나 행복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투표하고 노동할 수 있는 ‘정치적 시민-경제적 노동자’를 키워내기 위한 기관이다. 학년-반-번호, 수업시간표, 진도와 시험 등의 형식은 비사회적이던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형성하는 틀이다. 그리고 이때의 ‘사회적 존재’란 사회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단위를 말한다. 기계의 부품이 잘 만들어져야 기계가 잘 돌아가듯이, 사회도 그 구성원을 잘 길러내야 발전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런 시각은 테일러리즘에서 극대화되었고, 소위 ‘지식기반사회’라고 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작동하는 논리이다.

문제는, 이런 방식의 교육이 민중이나 피억압계급을 위한 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사실, 피억압계급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돕기 위해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이들에 대한 교육이다. 교육은 노동자나 여성, 농민이나 도시빈민 등의 소외된 계층이 자신의 권리를 찾아나갈 때 필수적인 활동으로 상정되었고, 사회운동과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로 받아들여져 왔다. 사회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피억압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교육받아 의식화된 계급은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어 나가는 주체로 상정되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크게 두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한다. 우선, 민중-학습자가 가르치는대로 변화하며, 가르치는 내용은 이들에게 이롭다고 하는 가정이다. 민중은 착취와 억압을 받는 존재이므로, 상황을 깨닫기만 하면 이들은 사회운동의 중심세력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했다. 민중은 암흑 혹은 침묵속에 있는 ‘모르는’ 존재이며, 이들에게 빛을 던지면 자동적으로 사회운동가가 될 것이라는 가정이 이런 교육에 깊이 자리잡고 있었다.

또 하나는 과학에 대한 믿음이다. 이들은 노동운동을 자본가 개인에 대한 노동자 개인의 투쟁이라고 보지 않는다. 노동운동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문제로 삼는데, 모순의 근원은 개인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급’이라는 사회구조에서 비롯된다. 과학적이고 구조적인 인식, 계급관계의 추론으로부터 운동의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Melucchi, 1996).

바로, 이런 두 가지 가정 모두가 기존의 제도적 교육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학습자에게 가르쳐지는 ‘내용’은 완전히 반대라고 할 수 있지만, ‘학습자는 무지한 존재이며 교육자가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시각, ‘과학이 해방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라는 계몽주의

적 믿음은 제도적 교육관과 같다. 우리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울여왔지만, 우리의 정체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형식이다. 사회운동에 더 많은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 선전하는 교육은 사회를 변혁한다는 목적을 가진다는 점에서 제도권 교육을 비판하며 그와는 전혀 다른 교육을 펼쳐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기존의 교육'의 가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런 교육은 프레이리식으로 말하자면, '변혁'이라는 내용을 예금하는 은행저금식 교육이다. 문제제기를 통해 학습자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를 지속적으로 '무지한 자'로 재생산하는 교육인 셈이다.

그러나 사회운동과 연관된 교육이 여기서 그친 것은 아니었다. 남성중심적 객관성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여성운동은 '여성의 경험과 주관성'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존의 진리관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마을생태계를 복원하자는 환경운동도 진행되었으며, 개인의 자발적, 자율적 참여가 보장되는 '생활정치'를 내걸고 신사회운동이 활성화되기도 하였다. 이런 운동들에서 교육은 암시적 강령을 선전하는 교육과는 사뭇 달랐다. 교육은 학습자의 욕구에 천착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고민하며 어디서 기쁨을 느끼는지에 주목하였다.

이런 새로운 양식의 운동은 일차적으로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출현한 것이다. 예전의 사회, 즉 산업사회에서 축적의 메커니즘이 단지 생산의 구조에 머무르고 있었다면, 탈산업사회-정보사회에서는 축적의 메커니즘이 사회적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서비스직의 확장, 정보산업의 증대 등 생산구조의 변화는 생산의 중심이 '사물'이 아니라 '상징'으로 이동하였으며, 이는 사람들의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구조가 출현하였음을 의미한다. 근대의 출현과 맞물린 합리적 사고가 전 사회구성원들에게까지 확장됨과 동시에 생산의 논리가 삶의 공간까지 파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Offe, 1985).

따라서 이런 사회운동에서는 '자기정체성의 재소유'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사람들의 '직접적이고 소외되지 않은 참여'가 논의되게 된다. 환경이나 문화운동, 지역운동 등이 부상하는 것은 환경, 문화, 지역 등의 주제가 개개인의 동기유발과 자발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고리들이기 때문이다. 가치는 평등에서 자율과 정체성으로 이동하고, 행위수단의 합법성과 공동체 성원의 합의에 기초한 목표의 설정이 주요한 쟁점으로 부상한다. 운동집단이 성취할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보다 중요하게 대두된다. 곧 행위자들의 어떤 의견도 함부로 희생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수평적인 의사소통양식과 개인의 삶과 결합된 문제의 설정이 핵심이 된다. 기존의 운동이 불평등의 해방을 과제로 삼는 '해방의 정치'였다면, 새로운 운동은 '삶의 정치'이다. 운동은 개인의 삶의 양식(life style)에 관한 결정과 밀접히 결합되는 것이다.

어떤 사회학자도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이런 사회운동의 핵심이 학습자의 주체적 학습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주체적 학습자가 된다는 것은 세계를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 자신과 세계에 대해 알아나간다는 것을 뜻한다. 이전 시대에는 사회운동에서조차 나의 앞을 타자의 의지에 복속시켰다면, 이제는 '나의 앞을 내가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 운동이 되는 것이다. 학습은 하나의 삶의 양식이고, 무엇을 알고 그 앞을 어떻게 나누며 얼마나 즐기는가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새로운 정보를 얻고, 재능기부에 참여하는 것은 곧 '다른 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며,

사회운동은 그런 '다른 나'를 받아들이기로 한 결정에서 출발한다. 곧 자기결정과 자기학습의 원리가 사회운동을 추동시키는 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해방은 모든 사람의 '지적 능력의 평등'에서 출발한다고 본 랑시에르는 평생학습운동의 핵심을 지적한다고 할 수 있다. 랑시에르는 아무리 진보적이라고 하더라도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하나의 지능과 또 다른 지능이 관계를 맺는 일이고, 그 관계는 우수한 지능과 열등한 지능 간의 수직적 형태의 것인 한 '불평등한 관계'를 재생산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진정한 교육을 하려면 지능상에 전혀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설명하는 일'을 중지해야 하는 것이다(Bingham, 2010). 해방은 '가르쳐서는' 도래할 수 없다. 해방은 지적능력의 평등을 전제로, 모든 인간이 자신의 방식대로 지각방식의 틀을 재편성할 때 찾아온다. 교육에서의 설명이 위계를 만들고, 위계가 지배를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사상가가 노동자의 지능을 무시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노동자가 농민을 무시하고, 농민이 여성을 무시하고, 여성이 이웃여성을 무시하고 이렇게 무한이 이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사회의 무분별을 집약하는 정식은 우리가 우월한 열등자들의 역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있다.(Ranciere, 2008: 167)

학습자중심적 교육의 핵심은 지적 평등을 인정하는 교육인 셈이다. 거의 모든 교육에서, 열등한 지능과 우월한 지능이 있다는 신화, 그래서 "우월한 지능이 사물을 이성적으로 인식"하여 열등한 지능에게 알려주며, 열등한 지능은 "지각을 무작위로 등록하고, 기억해두고, 해석하고, 되풀이"하는 그런 관계가 실현된다. 생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쉽게 떨쳐내기 어려운 '우월한/열등한' 지능의 구분은, '불평등이 사회질서의 토대'라는 것을 긍정하게 한다. 이런 전제를 그대로 둔 채 교육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한쪽은 이미 이해한 자로서 이해하지 못한 학습자를 이해시키기 위해 방식을 바꾸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랑시에르는 그것을 "바보만들기의 진보"라고 말한다. 이렇게 급진적인 입장을 수용하면, 학습자가 교육자로 나서는 것, 학습자-교육자 간의 경계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런 전제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교육패러다임이 있다. 하나는 표준적 패러다임으로서, 교육은 지식전달로 구성되어있고, 세계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분명하고 명증하다고 믿으며, 교육자는 그자체로 권위를 가지며 학습자는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지식을 획득한다고 보는 관점-입장-인식틀이다. 다른 하나는 성찰적 패러다임으로서, 지식이 교육자에서 학습자에게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므로 학습의 주체는 학습자라는 입장을 취한다. 학습자는 사려깊고 반성적이며 합리적이고 분별력 있는 존재로 언제나 '교육자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인 것이다.

이런 두 교육 패러다임으로 조망해 보면, 80년대 맑시즘적 사회운동의 '표준적 교육 패러다임'은 시민-학습자가 수행하는 소소한 실천들 속에서 '성찰적 교육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겠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학습자 중심적 교육은 학습자의 욕구를 조사해서 '더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와 교육자의 존재론 자체의 변화를 요청하는 일이다. 이런 변화는 계몽주의-

모더니즘-자본주의로 이어지는 이성-남성-문명-산업에 대한 신화적 믿음에 대한 균열에서 출발 하되, 이성을 감성으로, 남성을 여성으로, 문명을 자연으로, 자본계급을 노동계급으로 대체한다는 입장을 넘어선다. 이원적 대립에서 약자를 두둔하거나 나아가서 위치를 뒤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원적 대립자체를 바꾸거나 무력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¹⁾

이 차이는 매우 크다. 학습자가 교육자가 되는 것은 '전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개개의 학습자가 교육자가 되는 일은 교육자와 학습자의 경계를 없애거나 넘나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학습자가 뭔가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지식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서 교육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것은 경계를 넘나드는 일이 아니다. 핵심은 학습자와 교육자를 나누는 권력적 틀이 사라지고, 본질적인 배움과 가르침이 자유롭게 흘러 다닐 수 있도록 말길이 트이는 일이다.

한마디로, 프레임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 중요하다. A가 권력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A를 B로 대체하는 것을 변화라 생각한다. 그러나, 프레임을 문제삼으면, A와 B를 그 자리에 위치짓는 방식 자체를 고민해야 한다. 남성-여성가운데 누가 억압을 받고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위계적으로 틀지우는 남성주의적-가부장적 관행이 문제시될 수 있고, 자연을 파괴하는 산업이 문제가 아니라 생태학적 관점이 문제시 될 수 있다.

Ⅲ. 도전을 위한 조건

프레임을 다른 프레임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 자체를 문제시할 경우, 곧이어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방향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다음 우화는 여러 차원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프레임을 문제삼는다는 것이 갖는 의미를 생각하게 해준다. 우화의 내용은 이렇다(Garcia, 2012).

우물의 입구

옛날 옛날에 오래되고 진흙투성이인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우물은 흔히 있는 우물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우물 벽에는 많은 구멍들과 빠져나온 돌이, 바닥에는 진흙 웅덩이가 있었으며 가장 자리는 들쭉날쭉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우물이었지요.

그러나 이 우물은 적어도 세 마리의 개구리-페페, 필라, 페트라가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세 마리 개구리들은 이 우물에서 아무런 불만도, 걱정도, 다툼도 없이 아주 잘,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삶은 더할나위 없이 단순했습니다. 세 마리 개구리가 위를 쳐다보면 가끔씩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은 밝고 푸르렀으며, 작고 둥그랬습니다.

1) 이런 균열은 남성중심의 합리성이라든가 산업사회적 개발론을 비판하였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원적 대립의 틀 자체에 대한 비판을 통해 새로운 의미창출의 장을 마련하게 되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이성-문명-남성-산업의 반대편에는 감정-야만-여성-자연이 자리한다. 전자를 비판하면 후자가 권력자로 등장한다. 소비니즘에 대한 비판은 손쉽게 여성권력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새로운 사회운동은 이원적 대립 자체를 문제시하는 데로 나아간다. 근본적으로, 남성주의적 시각이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피폐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먹이는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맛 좋은 파리와 빠르게 날라 다니는 벌레들, 그러나 이 것들은 개구리들의 혀바닥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젊은 페트라, 필라 그리고 페페는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개구리들은 팔짝팔짝 뛰어다니기도 했고, 뛰어넘기와 발구르기를 하며 놀다가 싫증이 나면 솟구쳐 뛰어올랐다가 구르기도 했습니다. 개구리들은 빗속에서 노래도 부르며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개굴, 개굴, 개굴!”

개구리들은 또한 하늘이 우물의 입구보다 크지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불쌍하고 무식한 개구리들.

어느 날, 페페는 평상시보다 더 먼 곳까지 가서 서성대고 두리번거렸습니다. 지금까지 개구리들은 항상 우물 속의 오싹하고 캄캄한 구멍이나 틈을 마주치면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페페는 궁금증이 발동하여 우물의 굴곡들과 후미진 곳, 틈과 미궁과 같은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페페는 바위로 된 평평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페페는 크게 한 번 도약을 해서 위로 뛰어올랐고, 우물 끝에 내려앉아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페페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밝아서 페페의 눈을 아프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양이었습니다!

페페는 황급하게 친구들에게로 되돌아가 소리쳤습니다.

“이봐 필라, 페트라! 이리 와봐.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침착해, 페페. 왜이리 흥분했어?” 필라가 말했습니다.

“페페, 무슨 일 있어? 뭐가 문젠데?” 페트라도 잇달아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보고야 말았어. 아주 크고 눈부신 빛을!”

“정말로?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믿기 어려운걸?” 페트라가 말했습니다.

필라는 “페페, 그건 불가능해.”라고 말하며, 눈썹을 치켜뜨고 “우린 여기서 한평생을 살았어. 여기서 우리가 본 것은 작고 둥그스름한 푸른 것만을 보아왔어. 이것이 이 세계의 크기이자 진실이야. 너는 정말로 눈이 멀었구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지만 내말은 사실이야.” 페페는 계속 주장했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필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잘 모르겠어” 페트라는 망설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빛나는 달

다른 개구리들을 설득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안 페페는 심사숙고하기 시작했습니다. 페페는 오랜 생각 끝에 필라와 페트라가 그 빛을 스스로 직접 보기 전에는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페페는 설득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필라,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나도 잘 알아. 그렇지만 너는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없겠니? 네가 시간이 좀 있고 피곤하지 않다면, 그리고 지금 네 다리가 아주 상태가 좋다면 이 장벽을 건너 뛰어보지 않을래?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큰 틈새를 향해 몇 걸음 가다보면 바위에 도착하게 될 거야. 그 바위의 정상에 도달하려면 넌 너의 최선을 다해야 할거야. 정상에 도달한다면 너는 곳을 보게 될 거야. 그곳에서 너는 한 번의 큰 도약이 필요하게 될 거고. 그 사이를 큰 도약으로 건

너뛰지 못하면 너는 땅바닥에 처박히게 될 거고, 아마도 다음 2주일 동안 웃음거리가 될 거야. 자 봐! 그런데 네가 그 곳에 도달하면 넌 빛을 보게 될 거야! 참, 그리고 내가 충고하나 해주겠는데, 빛을 너무 오랫동안 바라보지마. 아마 네 눈이 상할 걸.”

페페는 흥분된 목소리로 끈기있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페트라, 너는 고난을 무릅쓸 필요가 없어. 필라가 확인하게 된다면 너도 납득하게 될 테니까.”

“그래, 좋아.” 페트라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필라는 페페의 말대로 하는 것이 해로울 것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손가락 운동을 하고 목을 돌리고 무릎운동을 하며 몸을 푼 후에, 필라는 벽을 향해 뛰어올랐습니다.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필라가 커다란 틈 앞에 도착하였을 때 암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는 높았지만 그럭저럭 올라갈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필라는 크게 한 번 숨을 쉰 후, 땅을 힘껏 박차고 곳을 향해 팔짝 뛰었습니다.

“헉, 헉, 아~, 아우~.” 필라는 그만 실수하는 바람에 땅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필라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어느 것보다 훨씬 아픈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필라는 다시 한번 도전했습니다.

“흡~.” 단지 몇 밀리미터가 짧았습니다. 필라의 도전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한시간이나 되풀이되었습니다.

결국, 필라는 상처를 입은 채 욕을 하며 포기했습니다. 잠시 쉰 후, 필라는 다른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했고, 죽을 힘을 다해 바위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필라는 바위 끝을 간신히 잡을 수 있었고, 있는 힘을 다해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바위 위로 온갖 힘을 다해 올라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가까스로 상반신을 바위 위에 걸치게 되었고, 필라는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후, 하, 이 광경을 페페에게 보여주고 말겠어!”

어느덧 저녁이 되었고 필라는 다음으로 뛰어 올라야 할 돌출한 돌들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필라는 결눈질로 자신이 뛰어야 할 거리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필라는 거의 자포자기의 상태였습니다. 정확한 거리를 가늠하는 것도 불가능했고, 무엇보다도 몹시 피곤했습니다. 필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곧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필라가 잠에서 깬 때는 이미 한 밤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필라는 주위가 약간 더 밝아졌음을 알고 의아해 했습니다. 필라는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필라는 용기를 얻어 자세를 고쳐 앉고는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가늠하고, 약간 뒤로 움추렸다가, 셋을 센 후에 뒷다리에 있는 힘을 다 주고 솟구쳐 뛰어 올랐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허공을 날라 결국에는 멋지게 정상에 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페페가 말한 게 뭐지?” 필라는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부드러우면서도 밝은 약간 얼룩진 둥그런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필라는 몹시도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도대체 페페가 말한 눈이 멀 정도로 밝은 빛이 무엇이지? 이 빛은 너무도 부드럽고 곱잖아?”

필라는 달을 지긋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달의 불가사의한 아름다움에 도취되고 말았습니다.

필라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오는 길보다 비교적 쉬웠습니다. 필라가 돌아오자 페페와 페트라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필라 곁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래, 필라야, 넌 강렬한 빛을 봤니?” 페페가 흥분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빛은 내가 지금까지 봤던 어떤 빛보다 부드럽기만 하던데. 난 그 빛에서 눈을 떼지 못했단니까.”

“뭐? 2초 이상 빛을 보면 눈이 멀고 만다구.”

“아냐. 그건 너무 부드러웠어.”

“아냐. 너가 잘못 알고 있어.” 페페가 필라의 말을 끊고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는 내가 알아.” 필라도 지지 않고 페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때 페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너희 둘은 날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 난 더 이상 누구를, 무엇을 믿어야할지 모르겠어.”

깨달음

페페가 할 수 있는 일은 머뭇거리고 있는 페트라를 설득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페트라, 넌 나만 믿으면 돼. 내가 가장 먼저 봤어. 내가 개척자야. 필라는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힘을 너무 써서 혼동하고 있는거야.” 페페가 주장했습니다.

“아냐, 페트라. 넌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어. 넌 간단하게 나만 믿으면 돼. 내가 그 빛을 가장 최근에 봤으니까 말야. 나의 생생한 경험이 훨씬 유리하지.” 필라도 지지 않고 반박했습니다.

페페와 필라의 논쟁은 페트라가 질릴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페트라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둘 다 이젠 그만해! 너희 둘 다 옳을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 봤니?”

“아... 음...” 페페와 필라 둘 다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면 둘 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거나.” 페트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라고 생각해.”

“그래, 우리 모두 가보는 거야. 우리 모두.”

“페트라는 거기까지 가지 못할 걸. 빈약한 다리 좀 봐.”

“난 할 수 있어.”

“좋아. 내 생각도 페트라는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봐. 우리가 페트라를 도우면 돼.”

개구리 세 마리는 다음날 새벽까지 전략을 짰 후에 똑같은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개구리들은 커다란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지만, 진정한 의지력과 협동으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때는 늦은 오후였습니다.

해는 서쪽 지평선 위에서 따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개구리들은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페페도 필라도 먼저 말을 꺼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페페는 이것이 자신이 전에 보았던 희고 뜨거운 물체와 똑같은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필라 역시 자신이 보았던 것 보다 이 물체가 확실하게 더 밝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때?” 페트라가 말했습니다.

“음.....” 페페와 필라 둘 다 웅얼거렸습니다.

“여기서 좀 더 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한번 보자.” 페트라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필라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페페가 머뭇거렸습니다.

“제발!” 페페와 필라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좋아!”

개구리 세 마리는 처음으로 일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은 정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달과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개구리들은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봤니? 너희 둘 다 맞았어.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말야. 난 우리가 보려고 노력만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페트라가 말했습니다.

약간의 불일치가 생겼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일은 확실히 훨씬 더 힘들었고, 불확실한 길들이 놓여있었으며 위험한 굴곡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세 마리 개구리는 진흙 투성이의 이끼 사이에서 발판을 확보하고 서로서로 밀어주었습니다.

어려운 등반이었습니다. 세 마리 개구리는 서로의 손을 놓쳐 여러 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개구리들은 연약한 가지로 뛰어올랐고, 방향을 잘못 잡기도 했으며, 미끄러운 이끼를 잡기도 했습니다. 뱀이 옆을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올라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구리들은 번갈아 가며 앞장섰고, 다음의 행선지에 대해 토론했으며, 어려운 지역에서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우물의 입구에 도달하였을 때 개구리들은 다함께 멈추어 섰습니다. 개구리들은 바깥 세상을 살짝 엿봤습니다.

때는 마치 아침이었습니다. 해는 밝게 빛나고 있었으며, 나뭇잎들도 반짝거렸습니다. 필라, 페트라, 페페는 이 빛을 결눈질로 보았고, 점차로 빛에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개구리들은 점차로 서서히 새로 발견한 놀라움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나무들, 나비, 개구리들을 훑듯 보고 있는 두 다리의 생명체.

“정말 흥칙해 보이는 동물이구나.” 개구리들은 말했습니다.

개구리들은 조심스럽게 우물에서 나와 더 넓고 복잡한 세상 속으로 뛰어들었으며, 곧 일어날 아름다움과 위험에 대해 스스로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의 민중교육의 교본으로 사용되어왔던 위의 우화는 현 교육의 특징과 미래교육의 향방을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페페와 페트라와 필라는 첫째, 누구도 온전한 진리에 도달할 수 없고, 둘째, 체험해보기 전에는 상대의 경험을 제대로 알 수 없으며, 셋째, 새로운 사실을 접할 때 개인은 서로다른 특정한 태도를 취하고, 넷째, 서로의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진리가 명료하게 존재하고 있고, 언어에 의해 그 진리가 전달될 수 있으며, 학습자는 동일하고, 서로의 지식에 도달할 필요가 없다는 ‘상식’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교육자는 누구인가? 없거나 혹은 전부이다. 누군가의 안내에 따라 개구리들이 우물밖에 나간 것은 아니었다. 어떤 지식도 전달되지 않았다. 세 마리의 개구리 학습자들은 스스로 학습을 한다. 생각하고 따져보고, 비교하고 비판하면서 나름의 지식을 쌓아나간다. 주인공이 ‘학습자’인 것이다. 이 학습자들은 한 학습자 페페의 촉발과 세 마리 개구리의 토론, 그리고 실제로 함께 알아보려는 시도에 의해 학습을 해나간다. ‘우물안의 개구리’ 속담이 우물밖에 진리가 있다고 끝나는데 반해, 세 마리 개구리들은 각각이 세상을 보는 관점, 남의 이야기를 듣는 관점, 모

힘을 대하는 태도가 모두 다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살아나가기 위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현실감 있는 존재이다. 구성주의에서 늘 강조하듯, 학습자는 스스로 학습하며, 그 학습자의 경험세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알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세 마리의 개구리가 교사 없이 학습한다-스스로 알아간다고 해서 기존의 교육과 다른, 진보적이면서 주체적이고 해방적인 교육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여기서 우리는 다시 교육의 맥락과 교육자-학습자의 관계에 주목하게 된다. 텍스트를 꼼꼼히 보자.

우선, 우리가 있는 곳이 우물 안인지 밖인지, 교육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교육주체들을 정확히, 찬찬히 살필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교육자-학습자 간 경계를 이야기할 때, 주안점은 ‘학습자가 좀더 권력/세력/힘(power)를 갖게 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많은 경우, 학습자가 교육자가 하던 일을 하면, 학습자에게는 힘이 실린다는 가정을 한다.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수립하며, 학습속도를 조절할 경우 우리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졌으며, 교육자에서 학습자에게로 권한이 이양되었다고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학습자에 대한 관점을 온전히 바꾸지 않았다면, 이는 모양만 바뀐 것에 불과하다. 개구리에 따라서는 학습자로서의 자율성을 가졌지만 우물 안에서 계속 열심히 먹이잡기를 더 잘하는 일에 몰두할 수도 있고, 우물밖인지 안인지에 전혀 관심 없을 수도 있다. 다른 개구리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런 교육에 대해 우리는 과연 “기존의 교육의 경계를 넘어서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즉, 학습자 스스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여 ‘존재하기 위한, 더불어살기 위해’ 학습해 나갈 때 비로소 기존의 경계가 변화되는 것이다.

서동진(2007)은 그의 책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에서 자기계발과 자유를 구분하면서, 국가와 자본이 사람들 개개인을 하나의 기업으로 호명하여, 결과적으로 인간다움을 상실하게 하고 있다고 파악한다. 평생교육의 상당한 영역이 이런 자기계발영역에서 ‘긍정적 자아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서동진의 지적은 곧바로 평생교육의 전제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국가와 자본 모두가 개인들이 유연하고 자기계발적인 존재가 되도록 고무하고 있고, 개인은 그런 요구를 ‘자유롭게’ 실천하고 있으며, 나아가 스스로 그런 요구를 욕망하고 있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자와 학습자의 경계허물기는 기존의 ‘기계화하는 교육’과 크게 다르기 어렵다. 오히려 개인은 자기 안의 교육자를 책망하면서 더 깊은 자괴감의 수렁으로 빠질 수도 있는 일이다.

다음으로, 교육자-학습자간의 관계 문제이다. 교육자와 학습자가 단지 역할일 뿐, 지적인 우월감이나 존재적인 차이를 가지 않는다고 보면, 교육장면에는 언제나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학습자가 존재할 뿐이다. 그런 학습자는 언제나 상호협력하되 긴장을 늦추지 않는 집단으로 상정될 필요가 있다. 물론, 우리가 교육장면을 떠올릴 때, 학습자는 다수이고, 그만큼 학습자는 집단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교육자가 주도하는 일방향식 수업에서 학습자는 무력화된 개인의 합일 뿐, 학습자의 역동이나 집합적 정체성은 주요하게 등장하지 않는다. 그 전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자의 지적 평등을 모든 교육-사회구성의 출발점으로 본 랑시에르는 ‘학습자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교육자의 의지’를 강조한다. 이것이 꼭 ‘교육자’일 필요는 없다. 누군가의 의지와 모종의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집단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촉진이 상호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자-학습자의 경계가 없다는 말은, 학습자가 교육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리체제 자체가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식을 다루는 방식, 다른 학습자를 대하는 방식, 소통의 방식이 기존의 교육과 다르게 구성될 때, 우리는 경계가 생명성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 더 지적하자면, 교육에는 언제나 페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항상 존재하며,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페페는 아무 이유도 없이 오로지 호기심으로 우물 밖으로 올라가보려고 애를 쓴다.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는 사고, 모르는 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태도, 안 받아들여질 때 끝까지 말을 거는 집요함. 아마도 이것이 진정한 학습의 역동을 만들어내는 동인일 것이다.

여러 학습자 가운데 한명의 학습자가 다시 교육자의 권력을 획득하게 되어있는 구조를 바꾸는 일은 중요한 사회운동이다. 사회운동은 문화의 의미를 전복시킨다. 조직이나 사회실천을 구성하는 기존의 방식이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사회운동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대안적 가치와 도덕적 비전에 의해 동기화되어 있는 이질적 인간들과 집단들이 연대를 이루어 행위하는 장면을 보아야 한다. 개인이 타인과 함께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Kilgore, 1999). 집단이 개인에게 스며들고, 개인이 집단의 문화코드를 바꿔내는 과정이 ‘강사가 된 학습자’의 실천에서 찾아져야 한다.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얇은 욕구를 조직하는 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토론의 과정, 집합적 담론의 형성과정은 평생교육의 중요한 역사를 이루어 왔다(Knowles, 1962). 외양이 같더라도, 평생교육의 긴 호흡 속에서 생명력을 유지했던 쪽은 주도적이고 집합적인 학습자였다. 기존의 교육이 지어놓은 경계는 이런 행위 속에서 숨구멍이 나고, 재설정된다. 시민학습자들의 새로운 실험들이 갖는 의미는 어쩌면 사후적으로 조망되는 것이 필요한 지도 모른다.

IV. 평생교육의 역동: 끊임없이 절합하는 경계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이렇다. 기존의 표준적 교육패러다임은 학교에서 뿐 아니라 기존의 사회운동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왔다. 교육내용은 진리로 간주되었고, 학습자는 대상화되었다.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사회운동의 양식은 이런 패러다임에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학습자는 존중의 대상이 되었고, 교육의 주체로 등장한다. 그러나, 학습자를 존중한다고 해서 곧바로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 교육자가 자신의 권한을 완전히 이양하되 의지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또한 학습자의 맥락을 보아야 하고, 지속적인 촉발자가 있어야 하며, 개인

을 넘어선 집단의 관점에서 학습역동을 찾아내야한다.

현재 진행되는 여러 ‘학습자의 교육자 되기 실험’도 이런 맥락에서 그 의미가 탐색될 필요가 있다. 우선, 학습자가 자유롭게 교육자로 나설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거나, 학습자로 명명되던 시민이 교육자로 나서고 있는 모습은 기존의 문화코드, 교육경계를 넘어서는 중요한 시도이다. 교육자가 뚜렷한 제도적 경계 속에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 ‘교육자가 되어보는 것’은 실험적인 의미를 넘어 변혁적이다. 그런 시도 자체가 교육의 강한 경계를 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실험이 기존 교육의 경계를 반복-재설정하는 데 그칠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학습자가 교육자로 나서는 순간, 학습자는 더 이상 학습자의 관점을 취하지 않게 되기가 쉽다. 교육자를 둘러싼 문화적 프레임이 그 순간부터 작동한다. “아.. 학습자가 날 무시하면 어떻게 하지? 틀리면 어쩌지? 정해진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등등. 이는 역할바꾸기 혹은 위치 바꾸기 혹은 권력의 이동일 뿐, 경계의 전변이 아니다. 사실, 패러다임을 바꾼 실천을 하는 것보다는 역할바꾸기에 그치는 것이 훨씬 쉽다. 벨 훅스가 말한대로, 억압의 습관은 전형적인 행동양식이며, ‘전형’과 ‘습관’은 가장 변화가 힘든 범주이기 때문이다(bell hooks, 1994: 179).

그렇다고 새로운 실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드 세르토가 정의하듯, 인간은 ‘아주 일상적인 차원’에서 재전유, 왜곡, 변형, 재가공하면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가는 존재이다(박명진, 2007: 132). 교육자의 자리에 선 학습자가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들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관점을 온전히 취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교육실천을 전개해야 한다. 외형적인 방식이나 환경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용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안으로부터 코드를 바꿔내는 ‘창조적 저항’이 매 순간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사회를 넘어서는 ‘공생사회’의 삶의 방식이며(조한혜정, 2010), ‘사건과 경험의 축적, 그리고 시간의 재구성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일이다(Senet, 2009: 209).

창조적 저항은 아마도 다양한 질문과 그런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과 연결될 것이다. “교육자인 나는 학습자들과 얼마나 수평적 관계를 맺는가?”, “수업장면에서의 정서적 교감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 “학습자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면, 수업에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등등. 교육장면에서의 다차원적 경계들에 대해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적지 않으며, 수업의 재구성과 나아가서 교육패러다임의 전환은 이런 질문을 끝까지 붙잡고 작은 실천을 하는 데서 시작된다. 여러 학자들의 개념을 일상에 적용하고, 기존의 상식을 조금씩 바꿔가는 작업도 그 실천의 일환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경계는 허물어질 수 없다. 경계가 없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닫힌-강고한 경계이고, 그 경계가 서민-시민-민중-학습자의 삶을 위축시킨다는 점에 있다. 경계는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동하며 그 두께를 달리하는 일종의 유기체다. 그 유기체성을 회복한 사회가 좋은 사회이다. 교육의 경계도 마찬가지다. 학교와 비학교, 수업과 쉬는 시간, 교사와 학생의 경계가 없을 수는 없으며,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중요한 것은 넘나들기가 쉬워야 한다는 점이다.

시민들은 평생교육을 통해 지나치게 경직된 교육의 경계를 넘나들기 시작했다. 교육이 살아 나기 시작하는 신호이다. 학습자인 '내 방식'의 교육을 실천하고 알리자. 경계를 떼고 붙이고, 계속 절합(articulate)하자. 새로운 교육코드를 공유하자. '행복'사회는 이런 작은 실천의 주체화에서 구현되지 않겠는가.

참고문헌

- 박명진 (2007). 문화, 일상, 대중. 한나래.
- 서동진 (2009). 자유의의지 자기계발의 의지. 돌베개.
- 조한혜정 (2011). “후기 근대 세대간 갈등과 공생의 전망”. 한국여성평생교육회 세미나.
- bell hooks (1994). Teaching to Transgress: Education as the Practice of Freedom. 윤은진 역 (2008). 경계넘기를 가르치기. 모티브북.
- Bingham, C. (2009). Under the name of method: On Jacques Rancière's Presumptive Tautology.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43(3), p. 405-420.
- Ellsworth, E. (1992). Why doesn't this feel empowering? Working through the repressive myths of critical pedagogy. Luke, C & Gore, J, Feminisms and critical pedagogy. New York: Routledge.
- Fiedler, F. (2009) 변증법적 유물론. 계명대학교출판부.
- Friere, P. (1972). Pedagogy of the oppressed. 성찬석 역 (1995). 페다고지. 한마당.
- Garcia, F. (2012). Of maps and leapfrogs: Popular education and other disruptions. 노일경 외 역(2012). 페페의 희망교육. 학이시습.
- Hemphil, D. (2001) Incorporating Postmodernist Perspectives into Adult Education. Sheared, V. & Sissel, P. (Eds) Making space: Merging theory and practice in adult education. pp. 15-28. Westport: Bergin & Garvey.
- Illeris, K. (2003). Adult education as experienced by the learners.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22(1), pp. 13-23.
- Knowles, M. (1988). The Modern Practice of Adult Education: From Pedagogy to Andragogy. NY: Jossey-Bass Publisher.
- Kilgore, D. (1999). Understanding learning in social movements: a theory of collective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18(3), 191-202.
- Melucchi, A. (1996). Challenging Codes: Collective Action in the Information Age.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ezirow(1991). Transformative dimension of adult learning. San Francisco: Jossey-Bass.
- Offe, C. (1985). New social movements: Challenging the boundaries of institutional politics. Social Research, 52(1), pp. 817-868.
- Ranciere, J. (2008). Le maitre ignorant, 양창렬 역(2008). 무지한 스승. 궁리.
- Sennett, R. (2009). New Capitatlism. 뉴캐피탈리즘. 위스덤하우스
- Welton, M. (1995). In defense of the lifeworld: Critical perspectives on adult learning. Albany: State Universtiy of New York Press.

주민이 만드는 일상의 학습, 동네학습

■ 파주 교하1차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똑똑도서관

주민이 만드는 일상의 학습, 동네학습 파주 교하1차 월드메르디앙아파트 똑똑도서관

김승수 · 똑똑도서관 관장

1. 똑똑도서관¹⁾의 시작

우연한 계기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2010년 11월 1일-2012년 10월 31일, 2년)으로 동네에서 활동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평상시 크게 관심 있었던 분야는 아니었지만 대표회장으로 활동을 하며 동네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동네 주민과 교류할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었고, 평상시 생각했던 다양한 일들을 마을 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큰 매력이 있었습니다.

2011년 11월, 주민들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어떤 변화를 바라고 어떤 바람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실천을 하기위해 주민 컨퍼런스를 기획, 실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의 뜻이 다음해 사업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위함인데,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보다 쉽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무슨 사업계획이나?'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늘 의심의 대상이 되고 불투명한 집행으로 오해를 만들 수 있는 '잡수입'에 대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참여한 주민의 100여 개가 넘는 의견 중 시설에 대한 보수나 설치에 대한 의견도 있었지만 도서 공간 만들기(도서관) 및 문화 활동에 대한 의견도 꽤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다른 것 보다 이런 제안은 일종의 주민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10년이 넘은 아파트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축은 상상보다 어려웠고, 안 쓰고 있는 공간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생각도 별로 안 들게 만드는 울적(?)한 곳이거나 리모델링의 비용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아 실행하는데 많은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1) 똑똑도서관은 인터넷에 떠돌던 <Project : Knock Knock Library>의 기획안에 근거하여 시작되어 동네에서 실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이며, 기획안을 배포한 조인호는 똑똑도서관의 부관장이 되었습니다.

도서 공간 만들기와 문화 활동을 실행하는데 일부 어려움은 있겠지만 주민들에게 꽤 괜찮은 사업이 될 수 있겠다는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만나고, 나누고, 먹으며 이야기하고, 책도 읽고, 때로 쉬기도 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무엇인가 할 것이 생기고, 또 만나고 싶고...*

허나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그저 흐뭇해지는 이러한 일들을 일상생활에서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찾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한지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 동대표의 임기가 끝난 후 마을만들기에 관심을 가지고 평소 활동을 하시는 동네 분들과 생각 및 대안을 모을 수 있는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우리 마을에서 가능한 방법을 조금은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12 오픈컨퍼런스 마을만들기 참가주민들

참가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종의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틈틈이 시간을 쪼개 자기계발과 무엇이든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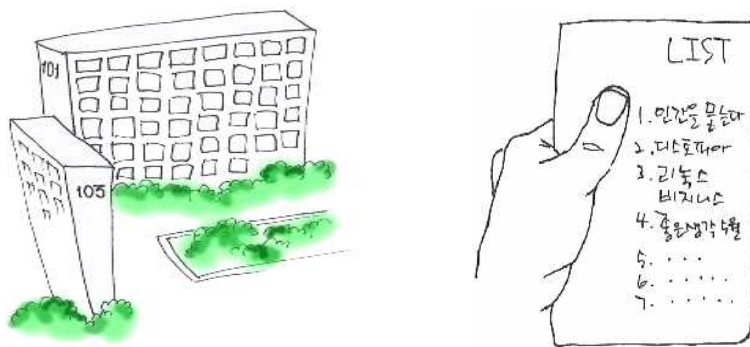
공간, 학교, 도서관, 성장, 만남, 배움, 나눔, 플랫폼...

여러 가지 핵심단어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내용을 조금 더 실현할 수 있는 매개를 찾게 되면서 그 방법으로 '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민간에 만날 수 있는 계기와 매개로 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이 단순히 책을 빌리고 읽는 것이 아닌, 책을 통해 만남이 가능하고 그 만남이 새로운 문화 활동, 지역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책을 통해 만나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가족 이야기와 더불어 문화적으로도 풍성해지는 상황을 바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움에 대한 요구도 있어 '학교'와 '도서관'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중요한 매개가 '책'이 되며,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문화운동, 지역운동이기에 '학교'가 아닌 '도서관'으로 2013년 1월 첫 삼을 뜨게 됩니다. 다만 자본도 직원도 없이 상상만으로 첫 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2. 똑똑도서관 만들기

주변 단지과 지역을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사람들이 모일 공간은 의외로 많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은 가까운 곳에 있지만 실제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였고, 주변 새 아파트의 도서관은 활발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기증된 책들은 집에서 버리기 이전의 것들이 많아 관심과 흥미도 덜할 뿐 아니라 관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 별도의 도서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작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물리적 공간은 도서관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정의했습니다. 각자 살고 있는 집이 도서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집에는 책이 꽂혀 있고, 대부분 한두 번 읽고 난 후에는 책장 속에서 숨도 못 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책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심플합니다.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도서의 목록을 공개하고, 이 사업을 시작한 코디네이터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103동 503호 조인호의 소장도서 리스트'라고 하면 끝. 이렇게 목록을 공개한 아파트 주민은 사서가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책을 대

여하는 시스템입니다. “103동 503호는 목요일 오전 10시-12시, 일요일 오후 6시-8시에 오시면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입니다. 똑똑도서관의 코디네이터는 이런 정보를 특정매체를 통해서 교환하고 리포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www.knockknocklibrary.com)는 지금 제작 중에 있으며, 참가를 하고 싶은데 컴퓨터 사용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소식지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결국 새로운 공간의 창출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훌륭한 도서관이 되는 것입니다.

3. 똑똑도서관 직원(?)소개

똑똑도서관은 정확히 말하면 법인이나 기업, 기관은 아닙니다. 물론 신고 된 기관이 아니기에 행정적인 절차와 무게감은 가볍게 보일 수 있으나, 그 내용이나 실행력만큼은 충실히 이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유연성을 가진 프로젝트팀으로, 똑똑도서관이 실행하고자 하는 궁극의 목적(문화운동, 지역운동, 대안문화)과 운영방식에 생각을 같이 한 사람들이 직원이 됩니다.

*이사장: 강산, 관장: 김승수, 부관장: 조인호, 무시무시, 홍보실장: 홍학순,
아트디렉터: 짬뽕, 사서: 염짱, 참여 주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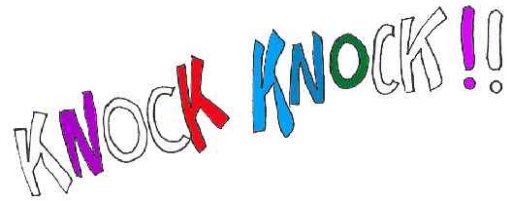
지금까지는 형식을 갖춘 직원이 전부이지만 실제 실행의 주체는 주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위에 기재된 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도서관의 발전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똑똑도서관에 책 나눔을 실천할 주민은 사서가 되며, 이후 필요에 따라 직함은 생겨날 것입니다.

지역운동의 기반은 외부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 그 지역의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책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자생력이 있을 때 이런 운동은 지속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시도하고, 실험하는 과정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과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니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으며, 책임감 있게 생각한 것을 자유로이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확대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모두 행복합니다.

4. 똑똑도서관의 기능

똑똑도서관은 무엇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을 나눠보고, 돌려보는데 그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가진 책을 나누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주민들이 서먹하지 않게 이웃집에 노크할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책을 통해 이웃을 알게 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가급

적이면 작위적이지 않게 노크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똑똑...

누구세요?

네...책 빌리러 왔어요...

어서오세요.

이런 풍경이 상상됩니다. 내가 가진 책을 내주고 책을 빌리면서 그 책을 먼저 읽은 사람으로부터 추천사도 들을 수 있는 엄청난 강점이 있고, 이웃과 인사하며 자연스럽게 독서문화에 대한 대화의 장을 열 수 있다는 부가이윤이 생겨납니다. 물리적 공간으로 생각했을 때의 도서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풍경입니다.

노크와 함께 시작되는 도서관이므로 이름은 <똑똑 도서관 Knock Knock Library>이 됩니다. 더불어 일상에서 책을 읽으며, 자기성장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목적 없는 수다보다 발전됨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배움에 대한 새로운 동기도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책을 통해 이웃도 만나게 되고, 책을 통해 개인적인 성장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5. 사람도 책이다

프로젝트의 시작에서 ‘학교’와 ‘도서관’ 중 어떤 컨셉으로 세팅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매개가 책이긴 하지만 무엇을 통해 배운다는 개념을 적용할 경우 ‘학교’의 컨셉이 보다 적당해보였기 때문입니다. 허나 배움을 전하는 매개가 되는 ‘사람도 책’이란 개념을 적용해보니 그에 대한 고민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네, 사람도 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린 사람을 빌릴 수도 있게 됩니다. 김치를 잘 담그는 할머니, 리본을 잘 만드는 아주머니, 그림을 잘 그리는 아저씨, 악기를 잘 다루는 대학생... 그렇게 생각하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책을 통해 서로 간 배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리라 생각합니다. 즉, 활자화 된 책도 빌릴 수 있지만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 그리고 나누고 싶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책을 빌려보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똑도서관에서는 ‘리본수업’, ‘요리수업’, ‘데일리드로잉수업’을 시작해봤는데, 일종의 시범사업이라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 리본수업

리본수업은 리본을 잘 만드는 아주머니 한 분이 동네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리본을 가르쳐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아이를 보내고 남는 오전 시간, 대략 1회 2시간, 총 8회로 진행하였습니다.

니다. 동네사람들이라 아이를 통해서 또는 이웃을 통해 쉽게 친해질 수 있었고, 진행과 참여에 많은 부담을 갖지 않아 더욱더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해 리본만을 만들다 점차 친구와 가족, 그리고 주변 이웃의 아이들에게 까지 만들어 주게 되며 참여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의 학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천을 사기 위해 삼삼오오 모여서 남대문에 가기도 하고, 집에 남은 천을 응용하여 만들기도 하며, 졸업식과 입학식에 사용할 사탕꽃다발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잘 모를 경우에는 아이를 재운 후 서로의 집에서 자정이 넘은 밤늦게까지 얼굴에 마사지팩도 붙여가며 만들었습니다. 리본 책을 사고, 재봉틀을 구하기도 합니다. 판매를 통해 창업을 준비 중인 아주머니가 생기는 것은 모두가 재밌기에, 그리고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기에 생긴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리본수업-리본 만들어 선물하기

• 요리수업

요리수업은 서로의 집에서 우연히 맛 본 맛있는 음식이나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는 음식을 서로 가르쳐 주는 시간입니다. 집에서 먹는 꿀 피자, 남편을 집에 일찍 오게 할 수 있는 꿀뱅이무침, 아이들을 위한 간식거리 등 간단히 할 수 있지만 평상시 생각지도 않은 음식을 서로 만들어 연습하고 남은재료는 서로 나누어 직접 가족들에게 만들어주는 실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리수업-동짓날 팔죽 만들어 먹기

재미있는 것은 음식을 만들면서 누구에게 주고 싶은지와 왜 그 음식을 주고 싶은지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족에 대한 고민과 애정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덩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직접 실습한 이후 음식을 통해 가족관계의 변화됨을 이야기하며 일상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웃의 집들이와 같이 대량의 음식이 필요할 때 참여자들끼리 서로 잘하는 것을 만들어 도와주며 새로운 관계가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자 요리도구를 사기도 하고, 요리책을 구입해서 보는 이차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데일리드로잉수업

데일리드로잉수업은 그림을 그리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그림을 그려 서로 공유하는 시간인데, 서로 만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세세하게 알려주는 시간이 아닌 그림을 그리며 일상을 생각해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데일리드로잉수업-동화책보고 그림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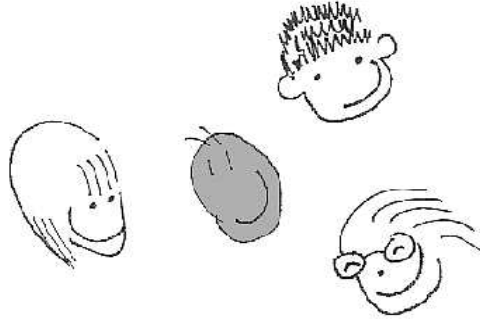
▲데일리드로잉수업-이사 오는 날 그리기

아파트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할 수도 있고, 가족, 기억, 마음상태 등 주제에 따라 그림을 그리는 내용이 변화될 수 있으며, 그림을 그리며 느꼈던 생각이나 느낌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며 일상에서 재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조금은 변형된 형태의 동화책을 보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점은 아이들이 매일매일 책을 읽고, 그림도 그리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과 결과물은 아파트 내에서 전시회도 할 계획이고, 추후 판매를 하게 된다면 아파트 변화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똑똑도서관이니 책으로 출판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위에 소개된 시범사업을 보며 주민 서로 새로운 학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새로운 관심을 갖게 합니다. 자신이 책이 되어 남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며 스스로도 정리가 되고, 책을 대여한 사람 또한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간으로 연속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일상에서의 비생산적인 수다가 아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와

주민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부가 생산되는 것들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6. 똑똑도서관의 미래

똑똑도서관은 마을과 주민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배우고, 나누고, 성장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더불어 사람들이 '도서관을 만들자'라고 말했던 이면에는 정말 하고 싶었던 지역사회의 대화 문화 만들기, 책 돌려보기를 통한 지식생산 및 관계의 개선, 그리고 자연스러운 도서추천과 마을과 관련된 주제의 토론, 새로운 아이디어의 제안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중심축은 '책'이 될 것 입니다. 주민 서로 책을 나눠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며,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아이디어를 일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의 중심축은 '주민'이 될 것 입니다. 주민의 참여 가능한 범위, 주민이 생각해낸 아이디어, 사서가 된 주민이 바라는 내용이 변화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말이지만 관장중심이 아닌 주민중심의 실천이 될 것 입니다.

앞으로의 똑똑도서관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아파트 리빙라이브러리

아파트에는 많은 어른들이 살고 있습니다.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는 분들을 찾아내어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사람책을 선정하고, 그 사람책이 살고 있는 집과 작업공간을 방문하여 직접 질문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 될 것 입니다.

• 북 페스티벌

우리아파트는 출판단지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출판사들과 연계하여 동네에서 작게라도 만들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해보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출판**

우리가 도서관이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일상의 변화를 잘 기록하여 그 변화에 대한 기록물을 책으로 써보고 싶습니다. 물론 책은 주민과 함께 주민의 손으로 쓰게 될 것입니다.

- **밋밋한 음악회**

아파트 곳곳에 좋은 곳이 많습니다. ‘밋밋한’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냥 우리가 평상시 다루는 악기로 연주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음악가가 아닌 일상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음악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 **우연히 받게 된 책**

추첨을 통해 아파트 주민의 우편함에 책을 꽂아두려 합니다. 간단한 편지와 함께 책을 드리려합니다. 그냥 기분 좋을 것 같으니까요... 책은 후원 또는 증정된 내용으로 충당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또 다른 다른 실천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모이고, 떠들고, 이야기하다 보면 일은 늘 만들어지니까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과 형식이 아닌 자연스러운 변화와 열린 생각을 통해, 똑똑도서관을 통해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후 똑똑도서관이 어떤 사업과 프로젝트를 할지? 저도 모릅니다.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고, 그 아이디어를 상황에 맞게 실천 가능하게 만들뿐입니다. 과정에 따른 반성과 새로운 계획은 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상상을 실천하는 것. 똑똑도서관에서는 가능합니다.

학습의 새로운 수요와 공급, 학습협동조합

■ **지혜로운학교(U3A 서울)**

학습의 새로운 수요와 공급

지혜로운학교 (U3A SEOUL)

이경희(중앙대학교 명예교수)
KHRHEE7@GMAIL.COM

평생학습 사례: U3A

U3A (University of the Third Age)를 통한 평생 학습은 원래 프랑스에서 피에르 벨라(Pierre Vellas)가 처음 제안.

1973년부터 툴루즈 대학에서 시작됨.

U3A는 1973~1975년 스페인, 이태리, 벨기에, 캐나다에서도 설립되었고, 1975년에는 스위스와 폴란드에도 설립되었다.



Pierre Vellas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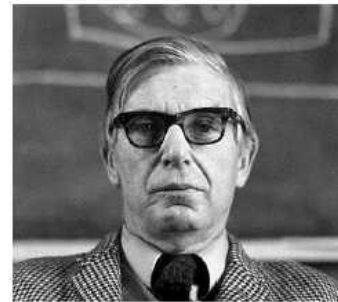
U3A IN U.K.

“당신의 지식이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지식은 당신에게 필요하다.” 라는 보편적인 진리의 실현.

영국에서의 U3A는 새로운 모형으로 구체화됨.

캠브리지 대학의 사회학 교수였던 피터 라슬렛(Peter Laslett)이 캠브리지 지역에 1981년도에 구상.

자원봉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교육에 접목시킴.



U3A IN U.K.

서로 배우고 가르치자.

제3세대가 스스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제3세대가 스스로 참여하자.
자주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적인 독립을 유지한다.

이렇게 시작된 U3A 교육은 그간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어 영국 전역에 798개소의 지부를 두었으며 회원은 26만 9천 7백 50명에 이르게 되었다.

U3A 런던 서부 지부의 경우 회원은 1,700여 명의 회원이 등록이 되어있으며 160여 개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런던의 서부지역 U3A 연회비는 67파운드로 회원으로 등록이 되면 1년 동안 무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U3A IN LONDON



U3A IN LONDON

유서 깊고 역사적 유적인 Hampstead Town Hall의 지하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임대료가 큰 부담이라 한다.

이 건물에는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입주해 있다.



U3A IN LOND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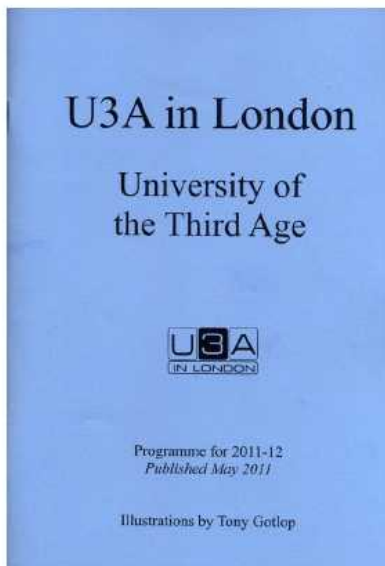
자원봉사자들로 운영되는 U3A:

Barry Rae 회장은 79세의 연세이나 이곳에서 강의도 하고 무보수의 회장 직을 자원봉사로 하고 있다.

3명의 직원들도 모두 자원봉사자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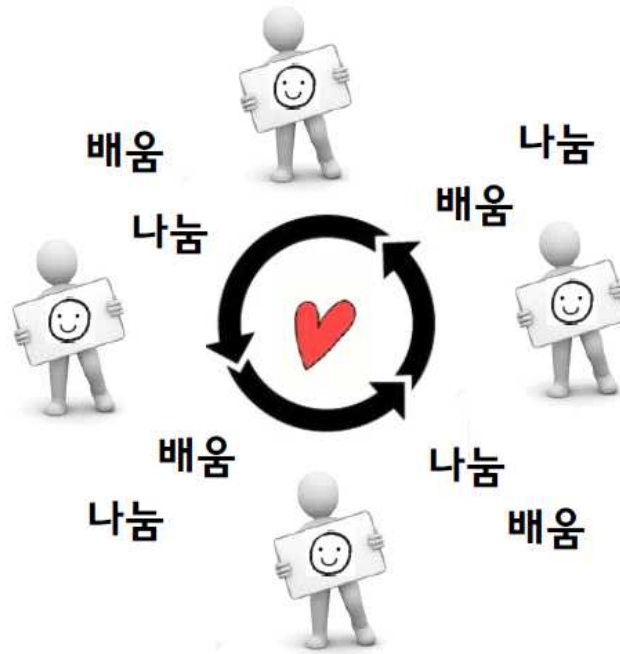
이 학습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즐거움과 성장**

U3A의 학습 프로그램



이곳에서 제공하는 학습 프로그램은 160여 개로 철학, 언어, 심리학, 역사, 예술, 체육, 브리지 게임, 컴퓨터 등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컴퓨터 반의 경우에는 컴퓨터에 문제가 있을 경우 아무리 해결하려 해도 안 되어 울고 싶으면 강사에게 와서 울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드디어

지혜로운학교의 새로운 시도:

- 2010년 12월 학교 설립
- 2011년 4월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 2011년 6월: 제1기 개강(5개 강좌)
- 2011년 9월: 제2기 개강(6개 강좌)
- 2012년 3월: 제3기 개강(10개 강좌)
- 2012년 9월: 제4기 개강(13개 강좌)
- 2012년 12월 '지혜로운학교'로 명칭 변경
- 2013년 3월: 제 5기 연간프로그램으로 개강 (28 강좌 개설)

새로운 삶을 나누며 배우는

지혜로열린대학



자신의 지식과 경험, 또는 재능을 나누어 주는 학교, 내가 풍사가 되어 가르치기도 하고, 학생이 되어 배울 수도 있는 두 가지 즐거움 모두를 나누며 성장해 갈 수 있는 학교, 바로 '지혜로열린대학'입니다.

수강생도입

지혜로열린대학에서 제2기 단계를 함께 나누며 배움을 갖으려 하는 수강생들 다들과 같이 모집합니다.

대 상 희망자(직장, 학생이외 회원들 포함) 모든 시민

과 목 학생들의 고민해결의 논리적 입찰기

박성훈의 예외 소중 비논리

박종수의 바둑이 인생

이재철의 컴퓨터로 살아자기

이원철의 사회적기업스타터

정우식의 행복을 짚는 사전교실

강력한 보기 ▶

기 간 개강요건(연차) 1월 15일(수) 오후 4시
4월 15일(월)부터 8주(코스) 8월, 주 1회 or 2회

장 소 강의 안내 참조

모집요원 강의당 5명 이상

회 비 강좌비 (입금) 동안 진행되는 모든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음, 10만원
클래스비 (한 강좌당, 2만원)

* 재료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별도

* 모든 강사는 불문타의로 강의료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봉사하여 주시는 편입니다.

UBAS

지혜로운학교



지혜로운학교

UBA서울



목적 : 배움과 나눔을 통한 학습공동체의 구현

원칙 :

- 자발적인 지식, 경험, 재능의 순수 나눔
- 성별, 나이, 신분, 지역을 초월한 열린 학습
- 개인의 성장과 즐거움
- 구성원의 잠재능력의 발현을 통한 사회적 공헌

조직 :

비영리민간단체



	전통적 학교	지혜로운학교
동기	타율적	자율적
지식	정형화된 콘텐츠	발굴된 콘텐츠
실용성	추상적	구체적
평가주체	국가	학습자
관리방식	통제, 관리	자율과 책임
학습방식	수동적	참여, 협력

새로운 학습장의 마련



스스로 마련한 학습 도구들



모든 현장은 학습장소가 된다.



강사들의 워크숍



때로는 강사들이 제공하는 교육장



일	화	화	수	목	금	토
4월	1	2 11:00 스페인어★ 16:00 MBTI★	3 10:00 조각보 19:00 제자백가 19:00 디카정복	4 14:00 1인출판 19:00 퍼스널브랜딩	5 16:00미술이다용 19:00라틴어초급 19:30행복코칭	6 10:00조선왕릉 10:00프랑스미술 13:00우쿨렐레
	7	8	9 11:00 스페인어 16:00 MBTI	10 10:00 조각보 19:00제자백가 19:00디카정복	11 19:00퍼스널브랜딩	12 16:00미술이다용 19:00라틴어초급 19:30행복코칭
14	15 10:30 영화함께 10:30시니어강사	16 10:30 마음읽기★ 11:00 스페인어 16:00 MBTI	17 10:00 조각보 19:00제자백가 19:00디카정복	18 14:00 1인출판 19:00퍼스널브랜딩	19 16:00 미술이다용 19:00 라틴어초급 19:30 행복코칭 달빛 불 산책"	20 10:00 조선왕릉 10:00 프랑스미술 13:00 우쿨렐레 14:00 책읽기
21	22 10:30시니어강사	23 10:30 마음읽기 11:00 스페인어 13:00 기독교고전★ 16:00 MBTI	24 10:00 조각보 19:00제자백가 19:00디카정복	25 19:00퍼스널브랜딩	26 16:00미술이다용 19:00라틴어초급 19:30행복코칭	27 10:00 엑셀평정기 10:00 프랑스미술 13:00 우쿨렐레
28	29 10:30시니어강사	30 10:30 마음읽기 11:00 스페인어 13:00 기독교고전 16:00 MBTI				
	--개강일 ★--예정개강일		--삼청동 --서초동 --기타		개강확정강좌 개강대기강좌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

1. EDUCATION/ **LEARNING**/ TRAINING

2. 학습의 주체는 누구인가: 생애 단계에서

3. 형식적/ 비형식적인 학습의 태도

4. 자원봉사자와 전문가의 구분

5. 학습 단체인가/ 취미 동아리인가

6. 중산층의 대상을 넘을 수 있는가

7. 학습의 장소, 재정의 문제/ 자주적인 해결이 가능한가

8. 이타적인 자원봉사자들의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한가

지혜와 사람의 연결, 온라인 경험 공유 플랫폼

■ 위즈돔



네트워크? 사회적 자본?
아무튼 작은 세상 만들기

한상엽(Wisdome)
max@wisdo.me @maxhanstory

Wisdome

사회적기업

멘토링서비스

강의서비스

사회적자본공유기업

Wisdome

소셜벤처

공유경제기업

매칭서비스

교육사이트

Wisdome

위즈덤



- 지혜/경험 공유를 통한 문화/사회 자본의 확산
- 개방적인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티핑 포인트 마련

공유경제 분야에서 주목받는 젊은 스타트업

제6회 세상 사회적 기업 콘테스트 수상
전자신문, 대학내일, 동아일보, 한국경제TV, 벤처스퀘어, 조선미디어, 한경매거진 등 각종 미디어 보도

고등학생, 대학생, 신입직장인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타겟층 확보

가입자 중 86%(15-35세)이며, Facebook 및 사이트 내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사회적 가치, 문화적 다양성, 새로운 기획 등 참신한 콘텐츠에 열광하고 반응하는 유저층 확보

Wisdom

양극화의 심화

“현대 사회는 경제 자본이 문화자본으로 이동하고 있는 시대이며 일반적으로 현대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 경제자본에 의해 발생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오해다. 문화자본에 의해 불평등이 발생된다”

* 이어령



기존의 접근

비영리/봉사적 접근

언론/사회단체들의 멘토링 서비스
수혜적 관점의 접근
재능/기금 기부 모델로 독자생존 불가

영리적 접근

문화/사회자본을 영리적 목적으로 판매
학원, 과외 등 사교육시장
특정다수, 중산층 이상 혜택
수도권에 집중

지금까지의 접근은 문화/사회자본의 양극화를 해결하거나
사회적 유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음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갈등 비용 연간 300조(국민소득의 27%)

Wisdome

위즈덤의 접근

기존의 영리적/비영리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위즈덤의 방법



인식의 전환_플랫폼의 구현

플랫폼을 통해 문화/사회자본의 공유와 순환을 촉진할 수 있음



Wisdom

위즈덤 플랫폼

문화/사회자본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적 접근

개인이 소유한 문화/사회 자본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개된 공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BM 1차 _ 플랫폼을 기반 지혜 및 경험 거래를 쉽고 재미있게 유도
전체 금액 중 플랫폼 큐레이팅 비용 30% 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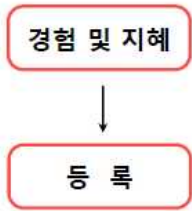
2차 _ 누적된 지혜 및 경험을 다양한 형태의 2차 저작 콘텐츠로 재생산

Wisdom

위즈덤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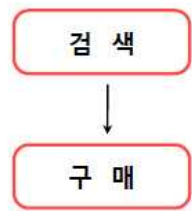
경험/지혜 판매자 : 위즈도머(wisdomer)

삶 자체의 경험/이야기 혹은 공동 작업/체험을 판매
 위즈덤의 내용, 날짜와 장소, 가격(1~5만원, 평균 1만 5천원) 결정
 경험 : 자신의 삶을 긍정, 새로운 인간관계 획득, 만남, 놀이 문화 창조



경험/지혜 구매자 : 위즈도미(wisdomee)

타인의 경험/지혜를 통해 직/간접적 경험전수
 소유/접근가능한 인간관계 획득
 새로운 만남/놀이문화 창조에 기여



전체 금액 중 플랫폼 큐레이팅 비용 30% 수수료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혜 및 경험의 거래를
 쉽고 재미있게 유도함

누적된 지혜 및 경험을 다양한 형태의
 2차 저작 콘텐츠로 재생산

Wisdom

위즈덤 웹사이트

위즈덤 메인 페이지



등록하기



검색하기



구매하기



Wisdom

위즈덤 만남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위즈덤

함께 배우고, 만들고, 나누는 위즈덤

숨겨져있는 다양하고 의미있는 행사들

* 위즈덤은 유명하거나 거창한 삶이 아닌, 일상에서 필요하고 공유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

현재까지 323분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직업관, 인생관, 실용적인 이야기들을 나눠주고 있으며, 2800명의 참석자들이 소규모의 위즈덤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을 재조명하고 동시에 경험의 폭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위즈덤 예시 : 동국대 대학생과 함께 대학생활 즐기기, 스님과 함께 절에서 지내기, 아나운서의 삶 듣기, 타투이스트의 철학



<15년차 컨설턴트의 비법전수>

<아나운서의 삶>

<스님과 남한산성에서 영상하기>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봉사여행>

Wisdom

위즈덤 만남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위즈덤

함께 배우고, 만들고, 나누는 위즈덤

숨겨져있는 다양하고 의미있는 행사들

* 당신만의 색다른 경험과 노하우, 재능을 나눕니다.*

위즈덤에서 그런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배우고, 만들고, 즐기는 모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위즈덤 예시 : 컬러드로잉, 출판여행가이드, 인생혁신세미나, 키노트 강의, 모바일 게임 스테디,

다양한 분야에서 강의 및 클래스를 열고 계신 사람들이 기존의 정형화된 형식과 내용을 벗어나서 개인브랜드를 구축하고 새로운 형태의 모임과 교육을 위즈덤에서 실현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즈덤은 개인이 가진 다양한 재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눠주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12

Wisdom

위즈덤 만남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위즈덤

함께 배우고, 만들고, 나누는 위즈덤

숨겨져있는 다양하고 의미있는 행사들

* 우리 주변엔 형식적인 강연회, 설명회 등의 만남과 모임들만 있을까요? *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과 조직들이 이미 각자의 영역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즈덤은 다양한 모임과 만남들을 이뤄내고 있는 곳들이 자신을 알리면서 동시에 대중들과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 함께 하고 있는 동료들 : 숨도, 젊은건축가포럼, 사단법인마을, 모두, SIFE, 다중지성의정원, 서울라이프러닝, 오이씨,





13



위즈덤의 1년



약한 연결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위즈덤

약한 연결이론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위즈덤에서 낯선 사람들과 인연을 바꿀 수 있는 약한 연결을 만들어 보세요!



- / 약한 연결이 강한 것보다 더욱 강력하고 창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경우가 더 많다. 여기서 약한 연결이란 아주 친밀한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얼굴도 있고 가짜는 관계를 의미한다.
- / 약한 연결은 많은 경우에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시작된다. 영감을 이루려는 개인적인 만남이야말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 / 80/20 법칙의 주장과 리처드 코지어의 신작 '낯선 사람 효과' 문헌 중에서



위즈돔의 1년

위즈도머(Seller)

450명

- 지역 - 수도권 99%
- 연령 - 25세 ~ 40세
- 성비 - 남녀 5:5
- 특징
 - IT에 친숙, 개방적임
 - 블로거, 전문직, 프리랜서 비중 높음
 - 자기계발, 참여형 워크숍, 구체적 학습

Wisdom

위즈돔의 1년

위즈도미(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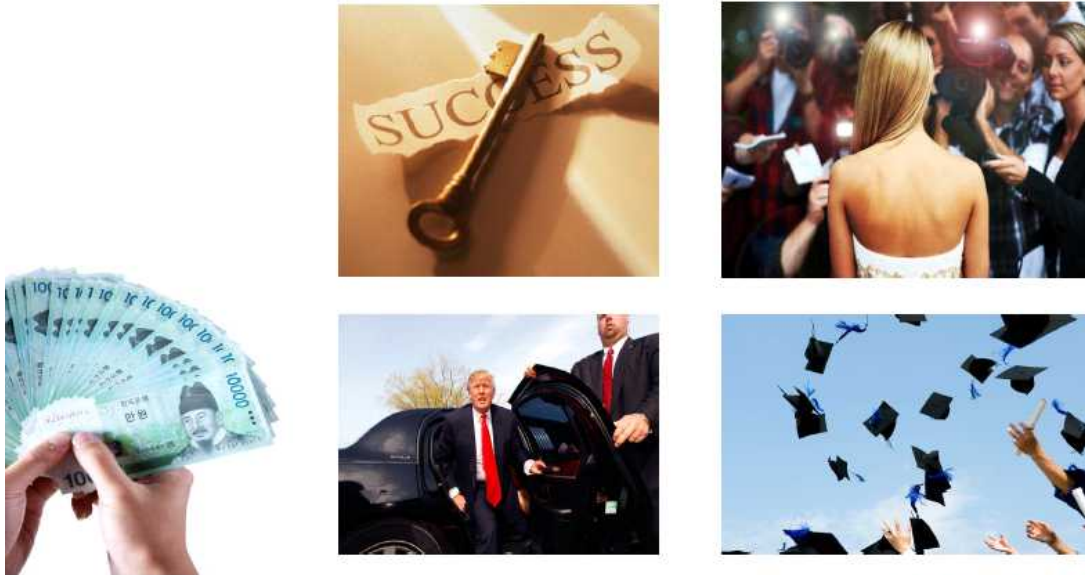
6,100명

- 지역 - 수도권 85% / 지방 15%
- 연령 - 25세 ~ 35세
- 성비 - 남녀 4:6
- 특징
 - IT에 친숙, 개방적임
 - 사회초년생의 비중이 높음
 - SNS와 지인추천을 통한 인지경로가 많음
 - 정보습득의 Barrier 가 높을 수록 관심

Wisdom

위즈덤의 미래 : 인센티브

• 참여 동기의 설계



Wisdom

위즈덤의 미래 : 거래비용

• 필요한 정보, 지식, 지혜의 저렴한 획득

탐색비용과 거래비용의 감소를 위한 시스템 및 정보의 가시적 제공



Wisdom

위즈돔의 미래 : 신뢰측정

• 신뢰/평판시스템의 도입

- 1) SNS와 콘택포인트 공개
- 2) 프로필 공개
- 3) 이미지/사진 공개
- 4) 후기 시스템
- 5) 평점시스템(추후 도입)



위즈돔의 미래 : 접근성

• 지방 수요 15%

- 지방 오프라인 위즈돔
- 온라인 위즈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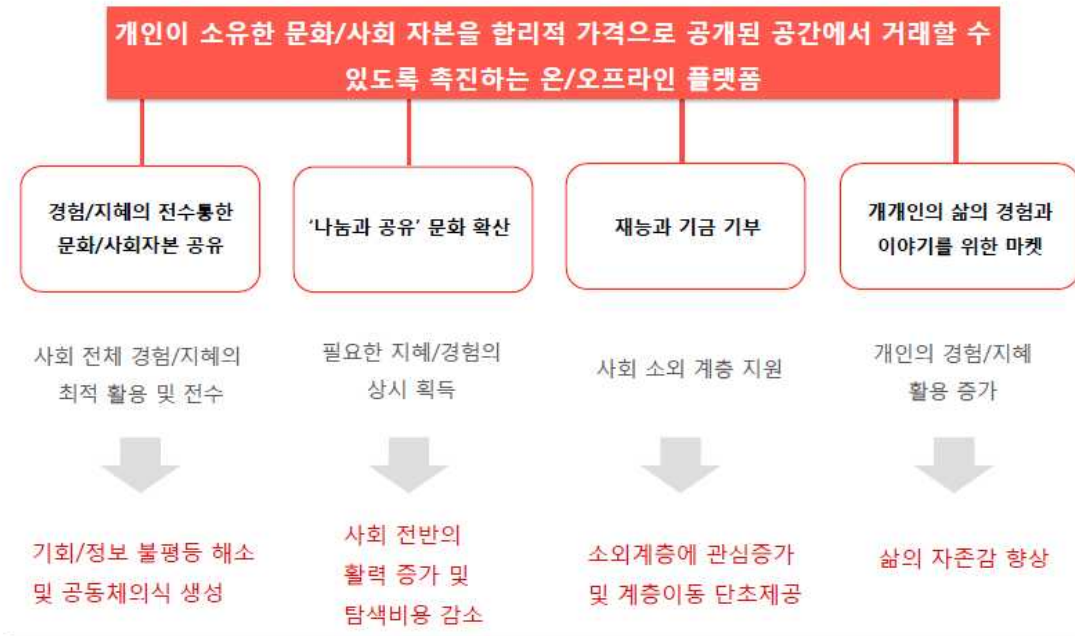


• 편리한 접근성

- 앱 및 GPS 연결
- 지역성의 강화



위즈덤 플랫폼



Wisdom

위즈덤의 목표

누구나가 개인이 소유한 문화/사회 자원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개된 공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온/오프라인 '위즈덤' 플랫폼 구축

1. 지혜/경험 공유를 통한 문화/사회적 자본의 확산
2. 개방적인 한국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티핑 포인트 마련

모든 사람들의 '삶' 이 소중하고 또 충분히 가치 있음을 알고 서로의 지식, 정보, 경험의 가치를 인정하고 또 나누는 위즈덤의 사회적근! 문화/사회자본의 손쉬운 거래/공유 창출, 정보와 기회의 소외 계층 감소

wisdom

네트워크법칙의 기본

한 번에 한 사람 (마더 테레사 수녀)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만 2천 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붓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Wisdome

사람과 사람의 연결.

만남은 씨앗이 되고 그것이 싹을 틔워 세상을 조금씩 바꿔 나갑니다.
잡스와 워즈니악이 만나지 않았다면 애플은 없었고
서태지가 양현석을 만나지 않았다면 서태지와 아이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남을 통한 정보와 기회의 획득과 연결되는 문화/사회 자본은
실제적이고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잡스와 워즈니악의 만남



서태지, 양현석, 이주노의 만남

070-8260-5200 | help@wisdo.me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0-12 유일빌딩 6층

현상엽 max@wisdo.me / 010-3053-1302

Wisdome

제도권 평생학습 패러다임의 변화, 시민주도 평생학습

■ 수원시평생학습관 누구나학교

제도권 평생학습 패러다임의 변화, 시민주도 평생학습 수원시평생학습관 누구나학교

정성원 · 수원시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도시란 시민의 생활권인 도시에서 시민들의 교육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교육이 다시 어떻게 지역으로 환원되는가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수원시평생학습관은 지역에 환원되는 시민의 평생학습,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모델은 어떠해야하는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가장 큰 도전은 <수원 누구나학교>였다.

I. 들어가며

교과부는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과 활성화를 위해 매년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와 심사를 거쳐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해 왔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2012년에 서울의 은평구와 부산의 진구 등 총 8개 지역이 선정되면서 지금까지 전국에 총 92개의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했습니다. 수원은 2005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2011년 10월에 지금의 평생학습관을 개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 평생학습도시 개념의 핵심

보통 평생학습도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 운동이다. 그리고 지역 사회의 모든 교육 자원을 기관·지역 사회·국가 등에 연계시켜 네트워크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 시민에 의한, 지역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역 사회 교육운동이다.”

후자에 따라서는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의미규정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위 개념의 핵심은 평생학습이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그리고 관 주도가 아닌 시민을 주체자로 본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평생학습도시들이 관 주도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해마다 큰 차별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평생학습도시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 수원시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기관의 고민

(1) 양적지표로 인해 인기강좌의 우선적 배치

수원시평생학습관처럼 지자체로부터 운영재원을 전적으로 지원받는 평생학습기관은 양적지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양적지표의 대표적인 것이 연간 프로그램과 이용자 숫자입니다. 평생학습에는 다양한 강좌가 필요하지만, 수강생이 많이 몰릴 수 있는 인기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인한 선택과 집중

수원시평생학습관은 연간 300개 내외의 크고 작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무제한적으로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재원의 제약 등등의 조건 때문에 시민에게 필요한 혹은 시민이 요구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수용할 수는 없는 일이기에 결국 기관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선택 행위에 시민은 배제되어 있으며 오직 기관에 근무하는 실무자의 판단과 결정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3) 실무자가 할 수 있는 기획의 한계

평생학습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은 실무자의 강좌 기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강좌 기획이 실무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요소를 종합하고 결정하기까지 담당 실무자의 능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관계자들의 학습에 대한 욕구조사를 하면 ‘기획력 향상’이 단연 압도적 1위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많은 평생학습기관 실무자들이 자기성장을 위한 교육훈련에 대한 시간적, 재정적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다양한 요구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여 창의적 기획을 하기란 어렵습니다. 결국 해마다 비슷한 프로그램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수강료

평생학습기관의 수강료는 일반 영리기관이나 학원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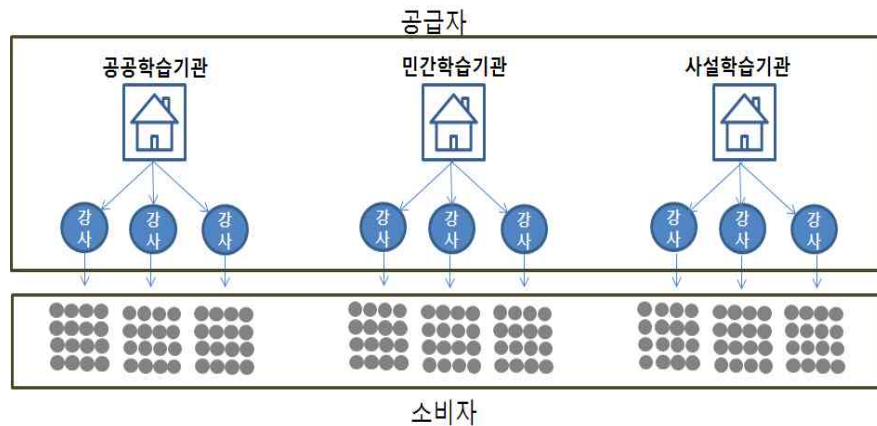
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특히 평생학습시설의 주요 이용자가 주부임을 고려하면 수강료 문제가 평생학습 이용자 확대 측면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강좌 전체를 무료로 개방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전액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곳도 수강료 수입이 있어야 하지만, 일반 평생학습시설의 경우는 수강료 수입이 운영재정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때문에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강좌는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별화된 강좌를 개설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3. 수원시평생학습관의 발상의 전환

(1) 평생학습기관의 수요와 공급

평생학습기관에서 강좌를 기획하고 공급하면, 학습자들은 제공된 강좌 중에서 관심 있는 강좌에 비용을 지불하고 수강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도해화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운영 기조와 시공간의 제약 등의 조건 속에서는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인 강좌가 일반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기관별 특징이 희석되고 대동소이해지게 됩니다. 시민의 선택폭이 넓지 않은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2)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누구나학교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는 이 공급과 소비의 체계를 뒤집기로 했습니다. 시민이 단지 소비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기획하여 강좌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참여'를 훌쩍 넘어 '시민이 주도하는'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누구나학교의 기본 발상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조응하는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 것입니다.

과거	현재
학교교육 (사회화를 위한 생애초기의 집중 학교교육)	평생학습 (자기창조를 위한 생애전반에 걸친 평생학습)
소수 엘리트 계층 재생산, 유지, 공고화를 위한 교육 (산업, 자본사회 운영을 위한 관리역할을 수행할 계층이 필요)	다수의 지성 향상을 위한 대중학습 (지식사회의 성공을 위해서 누구나 지식 및 학습이 필요)
형식적 교육 (교실이라는 특수한 제도적 환경 하에서 교육)	비/무형식 학습 (삶의 현장 어디에서나 학습, 일상 자체가 학습)
배움의 의미-지식, 스킬의 축적	배움의 의미-삶에 대한 지속적 성찰 및 끊임없는 존재의 변화
교육자 중심의 수동적 교육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 학습
이성, 머리 중시	감성, 몸, 마음 중시
개인별 독자적 이해, 탐구로부터의 배움	관계, 협동, 소통으로부터의 배움
절대지식 및 가치 중시	구체적 실제적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지식 및 가치 중시
자격을 갖춘 자만이 가르칠 수 있다.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시민강사의 시대
지식생산의 단위-조직	지식생산의 단위-개인 혹은 소규모 그룹
정부 중심의 공공 이슈 해결	정치사회경제 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의 관심 및 참여 증대
학습시기-청소년 시기 집중	학습시기-청년, 주부, 시니어가 주도세력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Ⅱ. '누구나학교' 1년의 도전과 실험

1. 추진 배경

(1) 개인의 평생학습이 지역으로 환원되는 평생학습 문화의 변화

최근 평생학습도시 전략은 시민들이 배운 학습이 어떻게 지역으로 환원되는가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에 갇히는 배움이 아닌 서로 공유하는 평생학습은 지역의 공동체성을 재건하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학습동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동아리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원들을 지역과 함께 공유할 때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2) 평생학습 패러다임의 변화는 시민이 실질적 주체가 되는 시민교육운동의 실현

배움과 가르침의 경계를 허무는 평생교육의 새로운 모델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운영되는 내용과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평생교육의 공급자, 수요자 개념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평생교육의 장이 필요합니다.

(3) 평생학습도시 수원의 특성, 환경을 반영한 프로그램 설계의 필요성

2005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수원은 평생학습에 대한 저변확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2011년 10월에 수원시평생학습관이 개관하면서 학습관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이 운영하느냐보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를 주요한 역할로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동아리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보다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의 학습주제, 학습조건에서 벗어나 강사와 학습자라는 경계를 허물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시민참여의 장이 필요합니다.

2. 기본 컨셉

(1) 누구나 가르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지식과 경험은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누군가의 지식과 경험은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학력, 나이, 직업, 자격증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학교입니다.

(2) 필요한 모든 주제가 강의가 됩니다.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은 학습기관에서 미처 배우지 못하는 지혜, 지식, 노하우 등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면 지식, 재능, 소소한 일상, 경험, 재미 등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학교입니다.

(3) 가르치고 배우며 서로 성장합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다시 점검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는 상호 협동학습을 통해 성장하는 학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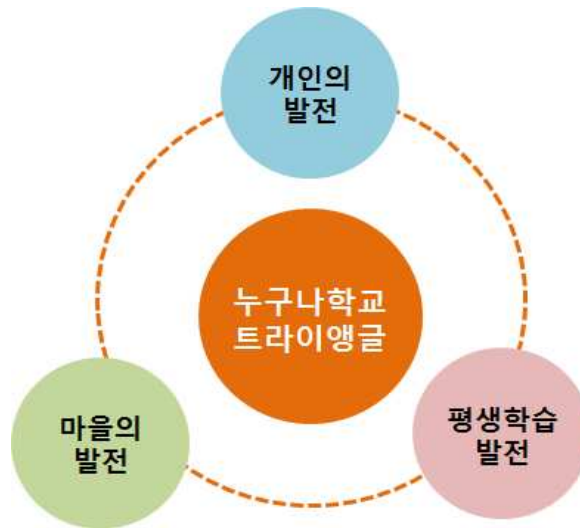
(4) 배움이 비쌀 이유는 없습니다.

배우고 싶지만 비용 때문에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비용 지불 없이도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학교입니다.

(5) 사람과 마을을 연결합니다.

우리마을에서 이웃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시민주도형 평생학습마을만들기를 실현합니다. 우리마을 누구나 선생 혹은 학생이 되며 수원 곳곳이 학교입니다.

3. 비전



▲누구나학교 비전

(1) 개인의 발전: 익명에서 지역 일꾼으로의 데뷔

강사로 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강사로 선다는 것을 전혀 상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전문강사나 하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이기 때문에 이 틀을 벗어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번 경험을 해 보면 태도와 자세가 달라집니다. 자신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작은 콘텐츠조차 타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는 경험을 할 경우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인정욕구가 있습니다. 칭찬받고 존중받는 경험은 누구나 해 보고 싶은 일입니다. 이런 기운이 퍼져 나간다면 잠재되어 있는 개인의 능력을 공적인 장으로 이끌어 내어 우리 사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런 분들은 자신의 성장뿐 아니라 지역의 일꾼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마을의 발전: 공유를 통한 개방성 확대

마을 공동체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일입니다. 또한 마을공동체의 운영 발전에 학습공동체가 매우 요긴하고 중요한 솔루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마을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마을은 단단하게 뿌리 내릴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2013년 '더 체인지'의 컨퍼런스에도 마을공동체를 위해 서로가 가진 능력을 연결시키자는 주제의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을만들기는 이제 우리 시대의 주요 가치로 등극하고 있는데 누구나 학교와 같은 시스템은 더욱 더 중요한 기제로 작동할 것입니다.

(3) 평생학습계의 발전: 학습생태계의 변화 견인

전세계적으로 자본주의가 전일화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곧 자본주의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있지만 이런 기존의 체계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자본제적 방식 즉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경제가 시장의 한 귀퉁이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학습계를 보면 거의 기관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관 중심의 시스템이 당분간 유지되겠지만 점차 비기관 형태의 학습시스템이 자리를 잡아 나갈 것입니다. 누구나학교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기존 방식에 대한 대체재 역할보다는 보완재로서의 역할 정도에 머무르겠지만 점차 그 역할과 위상이 높아져 평생학습계 생태계를 매우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4. 누구나학교의 특징

(1) 운영방식의 변화

기존의 평생학습은 전형적인 탑다운 방식입니다. 시민의 욕구조사를 하거나 혹은 시민의 니즈 분석을 토대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능력 및 방향성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고 이런 프로그램 기획 하에 강사를 섭외하여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국 단위로 넓혀 보아도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어디나 대체로 비슷합니다. 이것은 시민적 요구의 동질성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기관의 유사성에 기인하는 바가 큼니다.

이에 비해 누구나학교는 그야말로 자발적인 상향식 방식입니다. 최소한의 상식에 근거한 거름 장치는 있지만 누구나학교는 시민 스스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안하며 이에 호응하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콘텐츠의 퀄리티 측면에서는 누구나학교가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콘텐츠를 생산해 내는 기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시스템이 따라 오기 어려운 장점이 있습니다.

(2) 시민의 주도적 참여

기존 평생학습 참여형태는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시민이 더 이상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강좌를 들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선택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학교는 단순 참가가 아닌 주도를 하는 방식입니다. 할 것이냐 아니냐, 어떤 내용을 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어디서 할 것이냐, 누구와 할 것이냐, 몇 시에 할 것이냐..... 이 모든 것이 스스로 기획하고 주도되어 구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민주도형’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것은 전자의 경우 기획된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여 준비된 콘텐츠를 소비하는 수동태로 머물기 쉬운데 후자의 경우에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낸다는 것입니다.

(3) 프로그램의 다양화, 세분화

기존 평생학습의 경우 일정한 공식에 의해 패턴화 되어 있습니다. 너무 식상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사람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강사진..... 기관 운영에는 당연히 재원이 소요되는 일이라 수강생 숫자에 신경을 쓰게 되고 강좌 운영도 최소한의 수강생을 전제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콘텐츠의 안정감이나 세련됨은 있지만 파격적이거나 도전적인 혹은 소수만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은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생학습계의 대동소이한 강좌유형도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비해 누구나학교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세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개방형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새롭고 모험적인 시도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본 강좌에 앞서

테스트 강좌로써의 기능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존의 평생학습	누구나학교
방식	Top down	Bottom up
참여	참가	주도
운영	안정	역동
역할	수동	적극
콘텐츠	소비	생산
비용	수강료	무료
프로그램	패턴화/미분화	세분화/다양화
인원	일정 규모 이상	소수 가능

▲누구나학교 특징

5. 추진현황

(1) 추진일정

2012년	3월 21일	누구나학교 강사 모집 시작
	3월 29일	누구나학교 설명회 및 간담회 - NPO, NGO, 사회적기업, 평생학습 유관기관 및 동아리, 시민 등을 대상으로 누구나학교 사업 설명 및 강사모집 홍보
	4월 16일	평실사협회 MOU체결 - 시민주도 평생학습 활성화 및 강의발굴 등을 협력
	5월	누구나학교 다음카페 개설
	5월 17일	네트워크 파티(1차) -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학습교류를 경험하는 워크숍 진행 - 누구나학교 운영계획 발표 및 개설강의 홍보 - 대상: 누구나학교 강사, 동아리, 관심있는 시민 등
	6월	누구나학교 개강 - 27개 강의 개강
	11월	시민주도 평생학습 사례집 “다른 학습은 가능하다” 발간
	12월 26일	네트워크 파티(2차) - 2012년 누구나학교 활동평가, 참여강사 및 학습자들간의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함.
2013년	4월부터	어디서나 응원전(수원관내 근린공원 순회)
	4월부터 상시	“00이 여는 누구나학교” 설명회 및 Open party 진행“
	4월 25일	시민주도 평생학습 심포지엄 “시민제작 일상학습” 시민주도 평생학습 사례집 “교육 경계를 허물다” 발간
	4월 30일	“주민자치센터가 여는 누구나학교” 설명회
	5월 1일	응원단 발족식 및 “수원시장이 여는 누구나학교”
	5월 중	경기지방경찰청 등 MOU체결
	9월	“누구나학교 마을 축제”
	11월	누구나학교 스토리북 발간
	12월	누구나학교 땀큐파티 및 평가회

(2) 추진실적

추진기간: 2012년 6월~현재까지 연중 수시 운영

개설 강의수 (2013. 4. 기준): 180개

참여 강사: 79명

참여 학습자: 1,830명

학생이 여는 누구나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고생 민경이의 재미난 미술사 • 장학생 성철군의 공부법 • 예린이와 함께보는 지식채널e
부모이 여는 누구나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들의 힐링스쿨 • 엄마표 생활영어
환경지킴이가 여는 누구나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트병을 이용한 수경재배기 만들기 • 흙, 식물을 이해하고 친해지기 • 버려진 종이로 만드는 쇼핑백
사회적기업가가 여는 누구나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짜로사랑과 함께하는 천일염 두부만들기 • 공정여행 따라잡기
전문가가 여는 누구나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동네 의사선생님의 굿바이 디스크 • 수요일에 만나는 착한 가정경제멘토 • 재무상담사와 함께하는 보험다이어트
시니어가 여는 누구나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로 젊음과 소통하기 • 생생놀이단의 손주와 함께하는 전통놀이마당
솜씨좋은 이웃이 여는 누구나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느질로 만드는 헤어악세사리 • 발렌타인데이 수제초콜릿 만들기 • 졸업맞이 꽃다발 만들기
학습관 직원이 여는 누구나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볼매녀의 프레지 맛만보기 • 정관장의 쉽게 배우는 사진 후 보정 • 송대리의 시부야 대학배우기

▲누구나학교에서 진행된 강의 일부

Ⅲ. 누구나학교 성과와 향후 추진전략

1. 성과

(1)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모델,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평생학습을 통한 개인의 성장, 사회의 변화를 도모하는 평생학습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평생학습 모델인 '누구나학교'를 수원의 지역모델에서 전국적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2) 평생학습의 사회화, 공공성 확대

세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참여 가능한 열린 학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개인(집단)의 지식과 경험이 지역사회로 확대되고, 학습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 것입니다.

(3) 학습자의 성장을 통한 평생교육 리더 발굴

학습자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강의를 기획하고 가르치는 경험을 통하여 동네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야기 등에 관심을 갖는 지역의 리더로서 성장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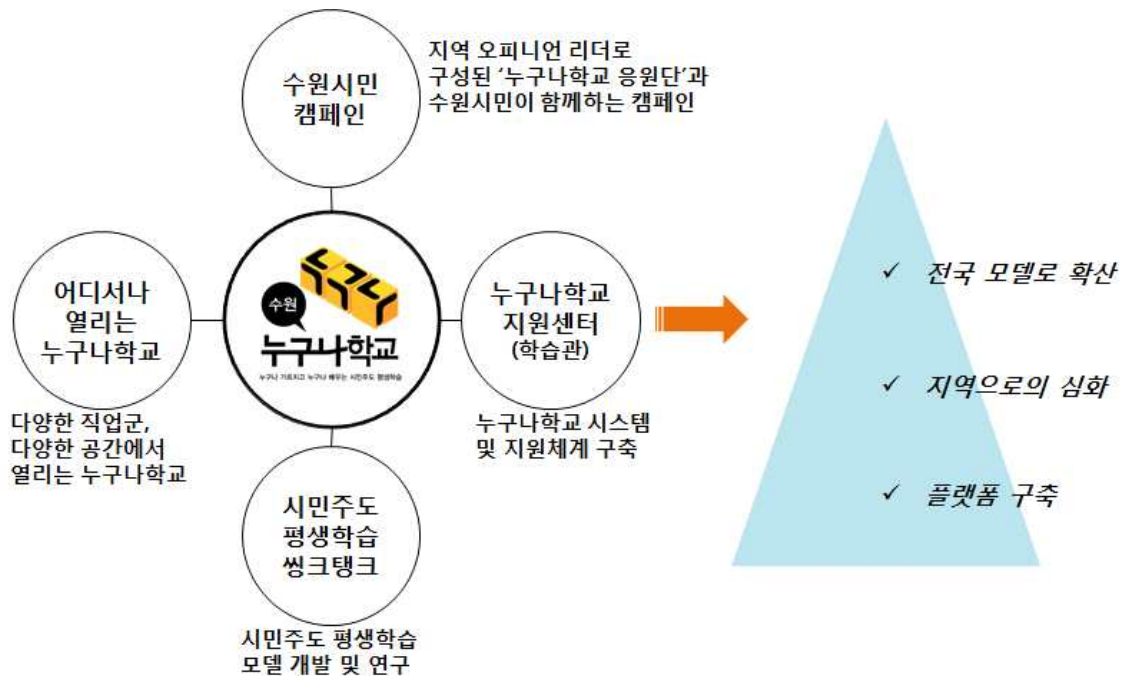
(4) 다양한 주제, 강사, 형식으로 평생학습의 범위 확대

평생학습기관의 운영범위에서 다뤄지기 힘들었던 다양한 강의들이 개설되었으며, 그 형식도 다양했습니다. 고등학생이 시니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아이를 안고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수강생이 1명이어도 강의를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의 생활아티스트들, 고등학생, 카페 바리스타, 직장인, 동네의사 등이 강사로 참여함으로써 평생학습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2. 전략 및 발전방향

누구나학교는 이제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단계인 것입니다. 그만큼 보완해야 할 것이 많은데 특히 강의의 양과 질 측면에서 아직 아쉬움이 많습니다. 더 풍성한 강의 개설로 선택의 폭과 참여 정도가 더 커져야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또한 시민 한명 한명의 개별적 참여 외에 기관 자체가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좀 더 효율적이며 전략적인 접근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학교 전략 및 발전방향

(1) 플랫폼 구축 “누구나학교 지원센터”

수원시평생학습관은 단순히 ‘누구나학교 강의’를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습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누구나학교를 보다 풍성하게 운영하면서 누구나학교가 어디서나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학교 운영프로세스는 복잡하지는 않지만, 처음 시작하려면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기 때문에 누구나학교를 준비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위해 설명회 및 오픈파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강의를 열고 수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학습중개형 온라인 홈페이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시민운영단 발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 시민협력을 통한 누구나학교 활성화 “누구나학교 응원단”

누구나학교가 수원 곳곳에서 정착되어 지역공동체를 위한 솔루션으로 작동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평생학습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수원시민이 주체가 되어 누구나학교 활성화를 위한 시민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민캠페인을 진행할 경우 핵심주체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누구나학교 응원단입니다. 누구나학교의 취지와 가치에 동의하고 누구나학교를 대표하여 시민 캠페인을 전개하는 누구나학교 응원단(지역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의 결합으로 누구나학교 운동이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시민캠페인의 시작은 수원시장부터 강사로 참여해서 시민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3) 지역으로의 심화 “어디서나 열리는 누구나학교”

지금 누구나학교는 수원시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나학교의 최종형태가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학교의 개념이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쇼케이스이고 모델하우스인 셈입니다. 모델하우스가 아닌 진짜 집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 지으려고 합니다.

① 지식의 거래가 아닌 삶의 공유

누구나학교가 추구하는 것은 지식의 전수나 교환이 아니라 삶의 공유를 통한 지역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할 때 누구나학교 시스템이 내장한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수원의 지역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수원시 주민자치센터와 결합하려고 합니다. 전체 워크숍을 통해 희망하는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와 손을 잡고 누구나학교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누구나학교는 평생학습관을 기반으로 한 그것과는 여러 모로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올해는 주민자치센터에 특화된 누구나학교로 새롭게 진일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로도 들어가고자 합니다. 부녀회나 혹은 뜻을 두고 있는 분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의 커뮤니티 형성과 일상의 학습을 위해 단지 속으로 파고들어 갈 것입니다.

② 기관의 집단적 참여! 경기지방경찰청

평생학습관은 경기지방경찰청과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동단 소속의 청년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재능을 누구나학교를 통해 공유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청년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접근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를테면 ‘불심검문 의연한 대처요령’, ‘간단한 호신술 배우기’, ‘범죄피해 예방 방법’ 등등 기동단 업무와 연관이 있으면서 시민들도 관심 있는 주제들이 오고간다면 그것도 참 재미있는 삶의 공유가 될 것입니다.

수원 시민 개별 개별에게 접근하여 홍보하고 참여를 권유하는 것을 넘어 이처럼 특정한 기업, 기관에 접근하여 홍보와 참여를 일시에 설득할 수 있는 효율적 접근을 통해 누구나학교의 플랫폼

을 더 단단하게 하고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향후로는 수원시 공무원, 시의원, 각 기업체, 의료 기관 등 다양한 기관,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누구나학교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4) 전국적 롤모델 확산을 위한 “싱크탱크 기능”

누구나학교는 수원지역뿐 아니라 타 지역에도 그 내용과 방법을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누구나학교의 보급뿐 아니라 국내외 시민주도형 평생학습 사례를 발굴하고 조사 연구한 것을 관련 단체 및 사람들과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2012년 영국탐방보고서에 이어, 올해 2013년에는 국내외 시민주도 평생학습 사례집 ‘교육의 경계를 허물다’와 ‘누구나학교 스토리텔링북’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미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와’를 통해서도 혁신적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제작 일상학습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평생학습기관으로 분류되는 기관 위주가 아닌 보다 다양한 성격의 단체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수원시평생학습관은 이후에도 꾸준히 누구나학교 사례 보급, 사례집 및 연구보고서 발간, 심포지엄 개최, 네트워크망 구축 등을 통해 평생학습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IV. 글을 마치며

평생학습기관들은 지금까지 넉넉지 않은 예산과 적은 인력으로 고군분투해 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결국 당분간 담당자들의 의지와 노력을 에너지삼아 평생학습체계가 구동될 것입니다.

다행히 시민 스스로 배움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 전면화되고 있진 않지만 소중한 씨앗이 발아하고 있음을 현장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평생학습기관들은 이런 시스템이 지역과 기관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상의 학습이 좀 더 단단해진다면 평생학습기관은 그들이 하기 어려운 혹은 좀 더 발전된 형태를 펼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콘텐츠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앎이 소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학습시설을 찾는 분들의 관점과 이해요구는 다를 수 있겠지만 평생학습기관에서 잃지 말아야 할 기본자세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학교를 경험한 정현희 씨는 “가족같은 분위기로 편안하게 진행돼서 좋고” 함께 참여한 분들과 “얘기도 도란도란 나누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래서 더불어 배우면서 “힐링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수강료라는 돈을 매개로 지식이 전수되는 강좌에서는 보기 어려운 풍경입니다. 전문강사가 아니라 비록 서툴지만 서로가 가르치고 배우는 편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소중한 모습입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배움의 즐거움을 서로 나눌 수 있다면 지역과 맞물리는 순간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소중한 솔루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별첨1 누구나학교가 우리에게 남긴 것

■ 마을에 숨어있던 사회적기업과 함께 놀며 배우기

‘밭에서 나는 고기’, 콩으로 만드는 건강 먹거리 두부! 우리네 식탁에 흔히 올라오는 두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체험해보는 <짜로사랑과 함께하는 두부만들기>는 고소하고 영양가 있는 시간이었다. 장보러 갈 때면 믿을 수 없는 먹거리 때문에 고민하는 주부들에게 국산콩, 무소포제, 천연간수를 이용한 두부를 만난다는 건 반가운 일이고 그래서 짜로사랑의 두부만들기는 단연 인기였다. 내 손으로 만들고 고소한 냄새를 맡고 맛보는 오감을 행복하게 하는 즐거움은 물론 ‘우리 마을에 이런 기업이 있었네’, ‘이런 착한기업이 마을에 더 많았으면...’하는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까지 선물해줬다.

수원지역자활센터의 도예사업단 <흙지기와 함께한 도예체험>, 원예사업단 <꽃밭가득과 함께하는 화분키우기>는 작업장인 광고산으로 찾아가 흙내음, 꽃내음을 흠뻑 즐기는 시간이었다. 작업장에서 진행하니 세상에 하나뿐인 그릇을 만드는 즐거움은 물론 멋진 전시작품들도 맘껏 구경하고, 건강을 위해 도자기 선택 Tip도 배울 수 있었다.

시민들에게 아직은 낯선 곳이었던 사회적기업, 자활센터 등이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왔다. 우리 마을의 보물 같은 곳, 마을에게 알차고 재밌게 놀며 배우는 다양한 그 곳과 누구나학교는 함께한다.

■ 비범한 이웃, 이웃집 아티스트를 만나다

아이 손을 잡고 때로는 유모차를 끌고 모이는 사람들.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사람들, 바로 켈트동아리 ‘누비니’이다.

“켈트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은데, 누구나학교 열어보세요.”

“난 전문가도 아니고... 용기가 안 나는데....”

“동아리 회원들과 하듯이 하시면 되요. 그리고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보면 충분히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망설이다 열린 <씨니쌤의 켈트 소품 만들기>에서는 바느질도 하고, 엄마로 아내로 살아가는 이야기 도란도란 나눴다. 그리고 어느새 멋진 작품 하나씩 똑딱 만들어진다. 종종 학습관을 오가며 가방에 핸드폰에 달랑달랑 켈트소품을 매단 이들을 만날 때면 그 소중한 시간을 함께한 정다움이 밀려온다. 남 앞에 나서는 것에 자신 없어 하시던 김선희 씨였지만, 앵콜 강의도 하고 동아리행사에서 체험부스도 운영하셨다.

<신성희쌤의 클레이아트>, <임화신쌤의 우드아트, 종이접기>, <전지현쌤의 리본공예> 등 집안 살림과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틈틈이 부지런히 배움을 열정을 놓지 않는 주부들! 내가 잘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거나, 만나서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들이 좋아서 누구나학교의 문을 두드린

비범한 그녀들! 이웃집 아티스트들의 도전은 계속된다.

■ 배우고 때때로 가르치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웃들과 마실하듯이 누구나학교에서 만들기 강의를 진행하다보면 수강생 중에 또 한명의 비범한 이웃을 만나 다시 새로운 강의로 이어지는 릴레이강의는 누구나학교에서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다. “제가 이번엔 쿼트 가르쳐드렸으니 다음 달에는 김미애 씨가 뜨개질 가르쳐주세요.”

쿼트소품 만들기 강의에서 만난 김미애 씨. 가르치며 배우던 이들의 응원에 힘입어 <코바늘로 만드는 털실코사지>를 열었다. 이어서 앵콜 강의 <졸업맛이 꽃다발 만들기>를 열어 꽃집에만 꽃다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투리 천으로도 특별한 꽃다발을 만들 수 있다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 주었다.

학습자에서 강사로 변신한 그녀는 ‘잘 가르치기 위해’ 이런 저런 자료를 찾으며 여러 번 만들고 연습했다. “전 아직 배우는 중인데...” 하던 그녀는 요즘 리폼, 재활용천을 활용한 공예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에 돌입! 그녀의 또 한 번의 아름다운 변신이 기대된다.

이렇게 누구나학교는 가르치기 위해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친다는 평범한 진리를 경험하게 한다. 학습자와 강사의 벽을 허물고 이웃 간의 협동학습, 상호학습의 즐거움을, 서로 가르치며 배우는, 멈춤이 없는 지속가능한 배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만화영화의 로봇만 몇 단계로 변신하면서 지구를 지키겠는가! 누구나학교 사람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변신은 지속가능한 배움의 세계를 지켜낸다.

■ 다른 삶을 가능케 하다.

“오늘 남자 둘이서 실컷 수다를 떨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도진욱 씨는 대학시절 글 쓰는 게 좋아 시인을 꿈꾸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시 창작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회사원이다. 하지만, 여전히 시와 글을 쓰는 게 좋고 지금까지 그 꿈을 간직하며 글쓰기를 계속 하셨다고 한다.

“시, 소설, 수필, 일기 그리고 논설문이나 한 줄 끼적인 글도 괜찮습니다. 형식과 내용에 관계 없이 각자 써온 글을 다른 사람 앞에서 읽고, 그 글을 쓰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것 입니다. 이를통해 자신의 글을 다시 되돌아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좋은 글을 읽어보기도 하며, 서로가 배우고 가르치는 강의를 만들 것입니다.”라고 의욕 넘치게 강의를 개설했지만, 참여자는 단 한 명이였다. 이에 좌절하지 않고 선생님과 참여자는 더 오붓하게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겠다며 써온 글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참여자 또한 대기업 독서토론회장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어서 깊은 공감과 소통을 나누는 강의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시작한 강의에 이제는 많은 관심과 참여가 눈에 띈다.

회사와 집을 쳇바퀴 돌 듯 오가는 생활로 삶이 너무 무미건조하게 느껴진다면 <옆집 아줌마가 들려주는 미사다>, <권수정쌤의 바느질로 만드는 헤어악세사리> <어슬렁의 핸드워머 장갑 뜨기>,

<볼매녀 은미쌤의 프레지 맛만보기> 강의들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또 다른 삶을 가능케 하는 이들을 만나보기를 권한다.

■ 탁월한 팀플레이가 낳은 명강의

스파게티로 탑도 쌓고, 빨대로 높이 쌓기도 하며 아이들 발명의 꿈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창의력 쑥쑥, 나도 발명왕>의 여성발명지도자 4인방이다. 네 명의 여성발명지도자들이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강의내용도 함께 연구하고 기획하여 누구나학교를 열었다. ‘발명? 어렵지 않을까?’하는 편견을 깨고 아이들이 재밌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이 강의는 마지막 시간이 되면 늘 아이들의 아쉬운 탄성이 교실 밖으로 흘러나온다.

여름부터 가을까지 토요일 오후 2시가 되면 늘 맛있는 냄새가 학습관에 가득했다. <꿈지락 요리샘의 가족요리교실>이 열리기 때문이다. 조리시설이 없는데 과연 가능할까? 그런데 멕시코 부리또, 과자집, 궁중만두, 주먹밥, 송편, 바람떡..... 안 되는 요리가 없다.

엄마, 아빠, 아이들 온 가족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요리시간. 김수영, 유영미, 유인덕, 박미진 4명 요리달인의 팀워크와 알찬 기획, 꼼꼼한 준비가 있어서 가능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강의는 입소문을 타고 전해져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지역아동센터,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기관에서의 강의요청이 이어지고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그러나 바쁜 중에도 아이들을 만나 즐거웠던 처음의 마음을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 발명의 달인, 요리의 달인들은 늘 새로운 교육내용으로 누구나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난다.

■ 누구나학교는 동아리 변신소, 동아리 제작소

○ 동아리가 여는 누구나학교!

학습관에는 50여개의 동아리가 활동하는 동아리 공간이 있다. 그렇지만 동아리축제 등의 행사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 한번 참여해보고 싶어도 그저 궁금할 뿐 시민들이 동아리의 문을 두드리기란 쉽지 않다. 답답함은 동아리들도 마찬가지, ‘배워서 남주자’를 실천하고 싶어도 마땅한 장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누구나학교에서 동아리활동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회원도 모집하고, 또 여차하면 새로운 동아리도 만들어진다. <백권가약의 그림책강의>, <평생학습상담사의 재능나눔>, <다연회의 예절교실>, <버드내무용단의 한국무용>, <발명동아리의 발명교실>, <소리향기의 사물놀이> 등이 그것이다.

○ 누구나학교에서 만드는 동아리!

어디 그뿐인가. 마음만 맞으면 동아리도 하나 똑딱! 누구나학교에서 가야금, 오카리나를 배운 사람들끼리 ‘금울리고’라는 동아리도 만들었다. 누구나학교에서 가야금, 오카리나를 일정기간 배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누구나학교 강의를 통해 계속 새로운 회원들이 모집되고 있다.

또 학습관의 문화예술학교 정규강좌였던 <서각교실> 수강생이었던 김용희 씨는 그 동안 갖고 있던 솜씨를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강의를 열고 그 속에서 동아리를 함께 만들 사람들을 만나고자 한다.

누구나학교를 처음 열 때 지역 곳곳에서 다양하게 재능을 나누고 봉사하는 동아리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 평생학습의 꽃인 동아리들이 주민들을 만나고 그들의 재능이 지역사회로 흘러들어가서 또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는 동아리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누구나학교다.

■ 아름다운 청년들의 세대 공감

“자신이 받은 것을 나누는 일, 다시 받은 누군가가 감사함을 전해 주겠죠?”

토요일 오전에 학습관 3층에서 향긋한 커피 향과 통통 서툰 기타소리가 들린다. 커피향기 나는 통기타교실, 성도영쌤의 강의이다.

“선생님이 젊고 멋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다른 곳보다 체계적으로 기본기를 잘 가르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모두다 한결 같이 이야기한다. 아들 뺨인 선생님에게 배우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태도로 임한다. 가지고 오신 간식도 나누어 먹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기타 강습이 시작된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사람들과 나누는 일에 행복감을 느끼고 봉사를 하는 삶, 요즘 20대에게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모습을, 성도영 쌤은 봉사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나누어야 하는 일이 아닐까라고 말한다.

“일주일에 총 4시간 봉사활동을 해요. 내가 가진 일주일 168시간 중 4시간인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봉사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이죠.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충분히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봉사를 하는 것은 자신이 받은 것을 나누는 일이에요. 내가 누군가로 부터 받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시금 전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봉사를 통해서 재능을 나누면, 또 다시 받은 누군가가 감사함을 전해주겠죠. 그렇다면 좋은 세상을 이루는데 일조하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의 실천으로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 합니다.”

스물 다섯, 군대 제대 후 복학하여 봉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군대 가기 전에는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공부를 하고, 입학 후에는 그냥 다른 애들처럼 놀면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군대에서 책을 읽으면서 조금 더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봉사에 대한 생각이었다. 제대 후 아주대학교에 있는 봉사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현재는 샘터야학에서 교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야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누구나학교에서는 기타를 가르치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한 결과,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적 지성인! 바로 성도영 쌤이다.

■ 지식공유 사회를 만드는 누구나학교

“○○병원 원장님이 강의하신다구요?” 반가움과 함께 몇 가지 염려도 함께 떠올랐다. “그런데 누구나학교는 배우고 싶은 분이 한분이라도 있으면 강의를 열리는 학교예요. 대형 강의를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랬다. 환자 진료하느라 바쁜 의사선생님이 누구나학교에 오신다니 사람들이 많이 안모이면 어쩌나 걱정스러움이 더 앞섰던 것이다. 그러나 그건 또 하나의 편견일 뿐이었다.

환자를 진료하면서 상담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늘 미안했고, 기초적인 자가진단법 정도 알고 있으면 스스로 치유도 가능한데 병을 키우는 환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강의를 하고 싶다는 우리 마을 의사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강의를 <굿바이 디스크>였다. 무릎관절, 퇴행성 관절염 등에 관심이 있거나 디스크가 염려되는 50~60대 학습자, 고생하는 부모님을 위해 강의를 듣는 착한 아들딸들이 함께하는 우리 마을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다.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지식을 공유하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누구나학교에 함께하기를 기대해본다.

■ 형식의 틀을 깨다

“아이를 안고 하는 영어강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 좋아요.”

아이와 함께 국정을 보는 Licaia Ronzulli를 기억하세요? 유럽의원의 총회에 그녀의 44일짜리 딸과 같이 입장해서 ‘임신과 직업, 사회생활과 가사를 병행할 수 없는 모든 여성을 위해 딸과 함께 이 자리에 왔다고’ 밝혔던 론줄리 의원을 보며, ‘우리는 언제쯤?’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다.



▲아이와 함께 국정을 보는 Licaia Ronzulli

아이를 낳으면 경력단절이 되기 쉽고 또 아이를 돌보다 보면 다른 일을 하기 쉽지 않은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현대 아이를 돌본다는 이유로 영어를 놓기 싫었던 김영진 쌤은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소규모로 영어공부를 하는 강의를 진행했다. “아기 엄마로 살다보면 자기 계발이나 공부를 등한시하게 되요. 저는 집에만 앉아 있는 것을 싫어하는 체질이라, 이렇게 강의를 하면 조금이라도 공부욕심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좋아요.”라고 말하는 김영진 쌤

을 볼 때면, 대한민국의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한사람으로 큰 응원을 보낸다.



▲아이를 안고 영어강의를 진행하는 김영진쌤

■ 상상하는 무엇이든 가르치고 배운다

<내 안의 창조성을 깨우는 글쓰기 1기~6기>, <쉽고 친절한 서평쓰기>, <그림책으로 상상력up>, <새해설계워크숍>, <자아찾기 네비게이터>, <안나카레리나 맛있게 읽기>, <성격만 알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다양한 아이템의 강의를 여는 누구나학교 대표선수는? 바로 독서코치로 유명한 김소라 씨이다. 자신이 할 수 있고 해보고 싶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누구나학교는 그녀에게는 즐거운 학교다. 어떤 주제이든, 어떤 방식이든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편하고 잘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배움도 즐겁다는 누구나학교 모토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녀!

그녀의 첫 강의였고 6기까지 진행한 <내 안의 창조성을 깨우는 글쓰기>처럼 ‘내안의 창조성을 깨우는 누구나학교’에서 상상력의 날개를 달고 또 어떤 모습으로 날아오를지 기대된다.

■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아이들

“미술사에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 미술을 전공하고, 큐레이터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미술사와 관련된 강의를 열기로 했어요. 비록 준비하느라 밤을 새워서 힘들긴 했지만, 학교 공부보다 훨씬 재밌고 즐거운 일이었어요!”

겨울방학에 고등학생들을 위한 <누구나쌤>워크숍이 열렸다. 고등학생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주를 남에게 전할 수 있다는 즐거움을 느꼈고 꿈꾸기 시작했다.

“앱 개발자가 될 거예요.”

“전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지금도 손마시지를 배워서 어르신들을 찾아가 봉사도 해요.”

“기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전 디자이너예요.”

“큐레이터가 되고 싶기도 하고, 미술사가 재미있어요.”

아이들의 꿈꾸는 소리가 가득했던 <누구나쌤> 워크숍을 통해 만난 이들은 그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를 누구나학교에서 만들었다.

미술사공부가 너무 좋다는 민경이는 “정말 제가 강의를 진행 할 수도 있어요?”라고 되물으며, 강의진행을 신청했다. 미술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고, 강의에 참여하는 대상이 다양한 계층이라는 것에 약간의 부담은 되었던 같다. 첫 강의를 위해 혈레벌떡 뛰어 들어온 민경 쌤. 첫 강의가 긴장되고 떨려서 강의 준비한 내용을 밤새워 보았다. 처음의 떨림은 어디로 갔는지 침착해 보였다.

“오늘 여기 온 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의 질문에 답을 잘하시는 분들에게 1억씩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민경 쌤은 강의 참여자의 이름을 칠판에 표시하고, 질문에 답하는 이의 이름 옆에 正자로 표시를 하며 강의를 이끌어갔다. 미술사의 흐름에 대해서 본인이 배운 것, 들은 것, 생각한 것들을 이야기하였다. 정확하게 모르는 내용을 모른다고 하기도 하며, 참여자들과 함께 소통하며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가 끝날 무렵, “오늘 강의로 모두 부자가 되셨네요. 25억, 16억, 전체인원이 답한 것들이 있어서 기본 5억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명작들을 프린터해서 코딩을 해왔어요. 오늘 강의시간에 본 작품들이죠? 본인이 마음에 드시는 작품이 있다면 경매형식으로 작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경매가 시작되었고, 참여자들은 이 어린선생님의 강의준비에 손뼉을 쳐주었다.

예술 감상의 방법을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는 세상을 인식하는 하나의 태도라 하겠다. 누구의 작품이고,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으며, 어떤 미술관에 걸려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아마도 ‘민경 쌤’이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유의 태도가 아닐까?

별첨2 누구나학교 학습자 간단 인터뷰

누구나학교가 지향하는 교육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누구나학교는 나눔의 가치, 배움의 가치, 협동의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일상의 지혜와 재능을 나누는 데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배움을 통해 행복함을 느낄 수 있으며, 지역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학습자들께도 충분히 잘 전달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수강생의 입장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 생각하며 오늘은 누구나학교 강의 수강 이력 38개 보유자 정현희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어떤 계기로 누구나학교 강의를 이렇게 많이 듣게 되셨나요?

누구나학교를 통해서 수원시평생학습관에 자주 오게 되었는데, 올 때마다 평생학습관의 편안한 분위기가 좋았어요. 특히 누구나학교라는 프로그램은 강의를 하는 데 부담감이 없고, 구속감이 없어서 자주 찾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자유분방한 성향이다 보니 어떤 강의를 들을 때마다 출석에 얼마이게 되는 강의보다 이렇게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취미 생활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나씩 듣다 보니 이렇게 많은 강의에 참여하게 된 거죠.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셨나요?

강의가 가족 같은 분위기로 편안하게 진행되어서 좋았어요.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과 다양한 얘기를 도란도란 나누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죠. 텀실코사지 만들기 강의, 켈트 소품 만들기 강의 등 일상의 소품을 만드는 강의를 들으면서 ‘힐링’이 되기도 했어요. 주부들은 자기 계발에 돈을 선뜻 쓰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인 재료값만으로도 저에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수원시평생학습관이나 누구나학교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수원시평생학습관은 건물에 들어섰을 때 정말 신선해요.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다양한 전시물들이 정감을 주고요. 인테리어만 봐도 이 기관이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벽에 걸어놓고 붙여놓은 것들 하나하나 구경하다 보면 서 새로운 자극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오늘도 강의 가다 말고 ‘누구나학교 숲’ 나뭇가지에 달린 전구 모양 장식을 구경하다가 시간가는 줄 몰랐다니깐요.

누구나학교 강의 중 가장 인상 깊은 강의를 있다면?

모두 다 재미있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꼭 짚어내기는 어렵네요. 다만 아쉬웠던 강의가 있기도 했어요. 한 강의는 너무 회 차가 길어지다 보니 강사님께서 강의 방식을 조절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누구나학교는 전문가가 가르쳐주는 강의라기보다 아마추어인 사람들이 함께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공유하며 가꾸어가는 시간인데, 그걸 간과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강사님들과 기관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야하지 않나 생각해요.

아쉬운 점이 있거나 수원시평생학습관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누구나학교에는 주로 늘 오시던 분들만 오시는 것 같기도 해요. 아직 덜 알려져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좀 더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좋은 기회를 함께 누리고 함께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시에서도 누구나학교를 벤치마킹해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나가면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보다 많아질 것 같아요.

춘천으로 이사를 가시게 된 정현희 씨는 이제 수원시평생학습관의 누구나학교 강의를 듣지 못할 거란 사실에 못내 아쉬워 하셨습니다. 누구나학교를 통해서 행복함을 느꼈다는 정현희 씨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수강생들도 함께 나누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반가웠습니다. 더욱이 더 큰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개인의 긍정적인 변화는 그 영향력을 발휘하여 주변 사람들, 더 나아가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게끔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앞으로 더 많이 알리고 나눌 수 있는 <누구나학교>가 되어야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것도 행복입니다. 배움으로 인한 풍성한 삶을 지향하며 누구나 숲의 나무가 열매를 송골송골 맺을 수 있도록 영양분을 많이 줘야겠습니다.

마을 전체가 캠퍼스

■ 일본 시부야대학

마을 전체가 캠퍼스 일본 시부야대학

정성원 · 수원시평생학습관장¹⁾

1. 시부야대학의 탄생 과정

■ 시부야의 지리적 특성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25개의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일본의 수도 도쿄는 행정상으로 보면 23특별구·26시(市)·5정(町)·8촌(村)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쿄라고 할 때는 23구의 구부를 말한다.

도쿄는 880만 인구의 국제적 도시로서 도청 소재지가 있는 신주쿠가 가장 중심 역할을 하지만 시부야 역시 그에 버금갈 정도로 고급 백화점과 각종 쇼핑몰 그리고 일본 최대의 레코드점과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늘 관광객과 젊은이로 넘쳐나고 있다. 시부야는 인구 20만 정도의 그리 크지 않은 곳이지만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강남의 소비와 문화 그리고 홍대의 젊음이 합쳐진 곳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한층 빠를 것이다.

■ 최초의 아이디어 제공자 하세켄 씨와 시부야구의 추진력 부재

‘시부야대학’이라는 개념과 아이디어는 최초 시부야 구의원인 하세켄 씨로부터 촉발되었다. 처음에는 시부야 구청에서도 이 아이디어에 공감은 하였지만 일본 공무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일에 쉽사리 도전하려 하지 않았기에 ‘민간이 중심이 되어 한번 해보자’는 의견으로 모아졌고,

1) 2013년 3월 15~16일, 이틀간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장과 박은미 연구원이 일본을 방문하여 시부야대학 학장 사교 야스아키 씨와 관계자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함께 실었습니다.

이때 사쿄 씨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고 자신이 한번 해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어 2006년 9월에 메이지 신궁 회관에서 개강을 하게 된 것이다.

■ 시부야대학을 이끌어 온 학장 사쿄(Sakyo) 씨

와세다대학 출신인 사쿄(1979년생)씨는 졸업 무렵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고민하기 위해 1년간 휴학 후 다양한 활동을 경험했다. 그리고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향을 갖고 기업의 시스템과 장점을 배우기 위해 대기업에 입사한 후 3년 정도의 경험을 쌓고 2005년에 퇴사를 했다.



▲시부야대학 학장 사쿄(Sakyo)씨

그 후 GREEN BIRD라는 일본 NPO에서 1년간 스텝으로 일하다가 2006년 9월 7일에 시부야 지역의 크리에이터, 시부야구청 관계자, 교육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NPO법인 '시부야대학'을 설립했다.

■ 소략

2005년 11월 시부야 대학 설립 프로젝트 시작

2006년 4월 시부야 대학 설립 준비위원회 발족,

도쿄도에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신청

2006년 8월 도쿄도로부터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 설립 인증

2006년 9월 메이지 신궁 회관에서 시부야 대학 개교식

2006년 10월 일반 공모에 의한 최초의 '거리의 선생님' 마츠다 씨의 수업을 함

2. 시부야대학의 기본 철학

■ 핵심 슬로건 “마을을 캠퍼스로”

시부야대학은 ‘마을을 캠퍼스로’라는 슬로건으로 출범을 했다. 그러나 이때의 ‘마을을 캠퍼스로’라는 의미는 단지 ‘시부야 지역을 캠퍼스화’한다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다. 시부야 지역에 있는 인적 자원, 공간적 자원, 환경적 자원을 코디네이팅하여 ‘지역자원에 의한’ 지역밀착형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부야대학을 ‘캠퍼스가 넓은 곳’, ‘마을이 캠퍼스인 대학’이라는 술부로 설명하는 것은 시부야대학 정체성을 온전히 담보하지 못하게 된다. 물론 공간적 개념이 시부야대학특징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시부야대학은 2012년 말 기준 약 290곳의 공간을 확보해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 공간은 메이지 신궁, 구내사회교육관, 서점, 카페, 초등학교, 백화점, 공회당, 역사, 대학, 극장, 기업체 등 실내외를 막론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어디서든 교실이 된다. 그래서 그들은 말한다. “시부야대학은 교실이 없습니다. 시부야가 전부 대학 캠퍼스입니다”

■ “선생이 학생이 되고, 학생이 선생이 됩니다”

시부야대학의 강의를 라이선스가 있는 전문강사 몫이 아니다. 지역에 거주하거나 지역에 연고를 맺은 평범한 사람들이 담당하고 있다. 물론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심지어 초등학교도 선생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카데미한 기준으로 보면 강좌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거기에 시부야대학의 철학의 녹아들어 있다.

시부야대학 강좌의 궁극적 목적은 ‘지식 그 자체’에 있지 않다. 배움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렇게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부야대학은 학문으로서의 학습기관이 아니라 배우고 싶은 마음을 키워서 배우고 싶은 마음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그러니 비록 나이가 어리고, 라이선스도 없고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또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3. 시부야대학의 각종 현황

■ 재정 현황

시부야대학 재정에 대해 자세히 공개한 자료는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입, 지출에 대해서는 잘 알기 어렵지만 사료 씨에 의하면 수입은 다음과 같이 3가지 경로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첫째는 기업관련 수입이다. 기업관련 수입은 다시 2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가입비 10만 엔

과 연간 회비 10만 엔을 납부하는 법인회원이 있고, 각종 사업이나 수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받게 되는 수탁비가 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협찬금인데 이것은 주로 구청이 시민대상 교육을 의뢰하면서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한다.

세 번째는 개인회원제도이다. 연회비 5천 엔이나 월회비 5백 엔을 납부하면 개인회원으로 등록이 된다. 이와 별도로 금액과 관계없이 기부금도 낼 수도 있다.

시부야대학의 수입은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중 약 60%정도가 기업으로부터 발생하며, 공공기관은 30%이고, 개인후원은 10%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이런 재정상황과 관련하여 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료 씨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다른 사회적 기업이나 NPO와 마찬가지로 재정적으로 자립해 지속적인 활동 조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점입니다. 시부야대학도 지금까지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 왔으며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11년에 일본에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기업들의 상황도 예년에 비해 매우 나빠졌습니다. 시부야 대학은 많은 부분 기업의 협찬으로 수업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수입이 모두 끊어진 것이지요. 그 때 수업수를 줄인다든가, 새로운 교실들을 개척하면서 힘들게 극복해 왔습니다. 그 때를 계기로 보다 나은 재정 구조를 만들려고 지금도 모색 중입니다. 그때까지는 일반 시민들에게 기부금을 모은 적이 없었습니다만, 시부야대학의 재정 상태 등을 공개하면서 새롭게 기부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 조직구성 현황

시부야대학은 NPO법인이기 때문에 3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라는 임원진이 있지만 실제 시부야대학을 운영하는 정규 상근직은 학장인 사료 씨 외 1명뿐이다. 넓은 지역을 커버하고 다양한 일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상근직 확충을 검토하고 있지만 재정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상근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다양한 볼런티어를 조직화할 수밖에 없다. 시부야대학은 현재 파트타임 1명과 학생인턴 3명 그리고 수업 코디네이터 20명과 볼런티어 120명 등의 자원봉사군을 구축하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수업 코디네이터라는 독특한 역할이다. 시부야대학의 상근직원은 기업이나 공공기관과 연계되는 사업이나 프로젝트 그리고 사무행정 업무만 담당하고 있고, 대부분의 일상적인 강좌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수업 코디네이터의 몫이다. 그래서 시부야대학의 강좌는 이 코디로부터 시작해서 코디로부터 끝나게 된다.

어떤 강좌를 할 것인지 먼저 코디가 기획을 하면 내부에서 그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스크린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강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코디가 추진을 한다. 즉, 해당 강좌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접촉해서 강사를 선정하고 그 이후에는 강좌에 가장 적합한 공간이 어디인지 찾아 나서게 된다. 물론 기존에 사용했던 공간을 사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공간을 접촉, 발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수업내용과 강사 그리고 장소가 확정이 되면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고 당일에는 볼런티어와 함께 수업을 운영하게 된다.

그래서 시부야대학에서는 수업 코디네이터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다고 이런 코디네이터에 대한 별도의 선발과정이나 체계적인 훈련과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강좌를 듣거나 볼런티어로 참여를 하던 도중에 이 일에 매력을 느껴 코디네이터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부야대학에서 만난 코디네이터 사토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부야대학 코디네이터 사토 씨

“처음엔 시부야 대학의 단골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축음기에 관한 수업의 선생이 됐습니다. 그 뒤 교실과 강사를 직접 교섭해 축음기에 관한 여러 수업을 준비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코디네이터의 역할이었죠. 그것을 계기로 수업 코디네이터가 되어 관심 있는 여러 테마의 수업을 기획해 오고 있습니다.

이 일의 매력이라면 수업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가며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일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과 만나 서로 얘기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이처럼 한국에서 온 분들과도 만날 수 없으니까요.”

■ 이용자 현황

일본은 회계기준이 3월이기 때문에 아직 2012년 각종 통계가 나오진 않았다. 그래서 작년 3월말 시점을 기준으로 각종 데이터를 보면 먼저 강좌는 634개이고, 강사는 691명이며, 강좌에 이용되고 있는 확보된 강의실은 269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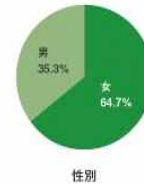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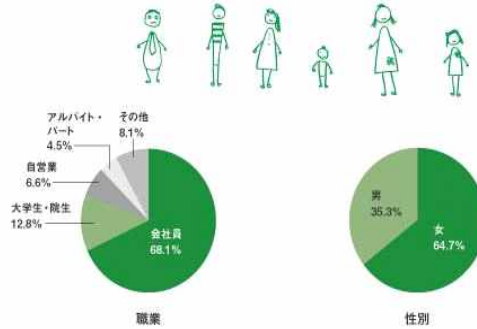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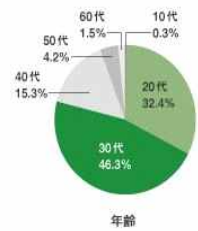
이용자 현황을 보면 등록된 학생 수는 20,444명인데 이중 여성이 64%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을 다시 직업분포로 세분해 보면 회사원이 68.1%로 압도적으로 높고, 다음이 12.8%인 대학생이고, 그 이하로는 자영업이 6.6%, 아르바이트가 4.5%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이용자 직업 조사를 할 때 ‘아르바이트’ 항목이 아예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본에는 이런 항목이 있다는 것이 이채롭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직업조사를 좀 더 세분화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대체로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다른 사람에게 시부야대학

을 알릴 의향이 많았고, 배움과 유대감이 본인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비율이 93.4%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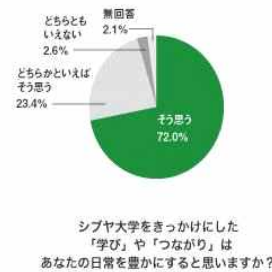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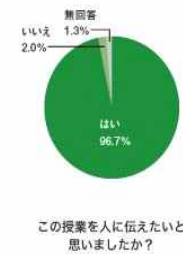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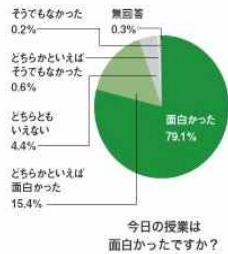
학생 등록 속성 (2012년 3월말 시점)

学生数/メーリングリスト登録者総数

20,444人



수업의 감상 (2011년도)



▲2012년 3월말 시점 통계 현황 (출처: 시부야대학 웹사이트)

4. 시부야대학의 강좌

■ 추첨을 할 만큼 높은 인기의 강좌들

시부야대학 관계자 인터뷰에서 볼런티어로 참여하고 있는 요시에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부야대학의 인기가 많은 수업은 추첨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한다고 반드시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수업에 계속 참가하고 싶습니다만, 이렇게 수업 전속 볼런티어로, 이를 코아 멤버라고 부르는데, 참가하면 수업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기대하여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참가해 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볼런티어 스텝으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볼런티어로 참여하게 된 동기 중의 하나는 수업에 참석하고 싶어졌을 만큼 강좌의 인기는 매우 높은 편이다. 물론 공간의 제약 때문에 참가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강좌의 퀄리티가 괜찮고 내용도 유의미한 것이 많아 사람들로 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다.

시부야대학이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7년 동안 운영될 수 있었던 요인은 결국 시민들 눈높이

에서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료 씨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풀어서 이야기했다.

“매달 참가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시민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다가 아니라 시민 입장에서 이것을 배우고 싶다는 기획. 이런 자세가 생활상의 니즈, 과제를 잘 파악하는 요인인 것 같고 이런 것이 원동력이 되어 시부야대학이 지금까지 존속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 강좌 사례들

2012년 말 기준으로 보면 강좌는 814개가 열렸다. 시부야대학에서는 각종 강좌를 카테고리라이징해서 데이터 축적을 하지 않고 있어서 관련 자료는 확보하지 못하였는데, 지난 해 한국에 와서 시부야대학을 소개한 사료 씨의 강연 내용을 추려 보면 아래와 같은 강좌들이 열렸다.

시부야라고 하면 패션과 젊은이의 도시라고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오래된 전통도 남아 있는 지역이다. 현재 시부야에 현역으로 활동하는 게이샤가 두 분이 있는데, 그 두 분과 함께 전통 게이샤 문화를 체험하는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전통 게이샤 문화체험 수업 (출처: 디자인빌리지스튜디오)

동네 꼬마와 함께 다니면서 지역의 매력을 발견하는 수업도 진행했다. 한 유명한 아티스트가 이 꼬마의 재능을 발견하고 함께 기획한 수업인데, 박스로 버스를 만들어서 그 버스에 어른들이 타고 함께 꼬마 가이드에 따라 지역을 돌아보는 투어 프로그램이다. 처음에는 어른들이 버스 안에 들어가는 것을 창피해했는데, 같이 돌아 보면 자연스럽게 즐기게 된다.



▲지역을 돌아보는 투어 프로그램의 모습 (출처: 디자인빌리지스튜디오)

시부야구청에서 쓰레기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실제로 자신이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모르는데, 이 수업을 통해 쓰레기 처리 과정을 알 수 있게 되었고 평소에는 잘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다. 수업이 끝나면 시부야대학에서 기부금 모금을 하는데 이 수업의 기부금이 가장 많이 나왔다.



▲쓰레기 처리 담당공무원이 진행한 수업 모습 (출처: 디자인빌리지스튜디오)

진로를 고민하던 한 대학생이 아버지를 선생ником 초청해 진행한 수업도 있었다. 아버지는 일본적십자의료원에서 간병을 교육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집에서 뭔가 쑥스럽고 어색해서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묻지 못하고 있다가 시부야대학 수업을 통해 들어보자 하여 기획된 강좌였다. 수업을 기획한 학생은 아버지와 비슷한 분야인 심리치료사로 일을 하고 있으며, 시부야

대학을 통해 아버지를 선생님이로 초대해 수업을 들었고 아버지의 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함께 할 동료들 찾고자 수업을 기획한 경우도 있었다. 시각장애인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음성 자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분은 <영화 음성 해설 세미나>를 기획했는데 실제로 수업을 계기로 함께 음성 자막을 만들 동료들 찾게 되어 NPO 설립까지 할 수 있었다. 이외에 시부야대학 홍보물에 나와 있는 강좌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교육은 함께 크는 것, “아이들이 듣는 아버지의 육아일기”: 우체국 근무 초보아빠
- 아이들이 가르치는 인간관계, “형제자매 싸움과 화해방법”: 초등학생
- 유언실행을 위한 자리가 되다, “내 꿈은 멈출 수 없다”: 여중생
- 매일 할 수 있는 로하스 라이프, “나의 극비 쓰레기분리 기술”: 주부
- 손가락을 사용하는 것도 멋진 체조, “머리와 몸의 관계, 큐브 3분 완성술”: 직장인

시부야대학 홈페이지에는 기존에 진행했던 강좌들이 실려 있긴 하지만 누락된 것도 있고 정보가 충실하지 않은 것도 있어서 강좌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오픈된 정보만으로도 몇 가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 광범위한 참여: 초등학생부터 시니어까지 강사진의 폭이 매우 넓다.
- 다양한 주제: 일상생활부터 전문적인 영역까지 다양한 강좌가 열리고 있다.
- 생활 강좌: 전문분야의 강좌도 있지만 대체로 일상생활과 연결된 강좌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과 호응도 높은 편이다.
- 재능 발굴: 게이샤의 경우처럼 스스로 강사로 나서기 어려운 사람들을 접촉하여 공적인 영역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
- 기관 연계: 개인뿐 아니라 지역의 기업체나 공공기관과 함께 강좌를 기획 한다.

5. 시부야대학의 핵심적 활동-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변화

■ 강좌 후 연계 활동

시부야대학의 미션은 “지역밀착형의 새로운 평생학습조직을 시부야에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평생학습기관처럼 단지 강좌 프로그램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시부야대학은 강좌가 삶과 지역 속으로 연결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래서 강좌의 후속 모임을 조직하거나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그 결과 다양한 형태의 세미나 모임이나

동아리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동아리 중에는 정식 NPO로 발전한 모임도 있다. 이것을 사교 씨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시부야대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업을 통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차례 진행되는 수업을 통해 선생님을 만난 후에도 선생님은 계속해서 시부야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찾아가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수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만들고, 연대를 이어갑니다.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합창 동아리를 만들어 공연을 하기도 하고 6,70대 노인들과 2,30대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 각종 기관과의 협력 사업

○ 공공기관

출범 당시 사무실을 시부야 구청 건물의 한 칸에 두었을 만큼 시부야대학의 출발은 시부야 구청과 깊은 연관이 있고 초기에는 구청에서 진행하는 평생교육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행정기관의 최대 취약점은 시민들의 참여율, 특히 젊은이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데 있다. 일본의 지리 환경적 특성상 재난에 대비한 준비와 훈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는 방재 대책이나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구청에서는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구청 주도로 방재 강습회를 실시할 경우 대체로 관변 기관, 상가 관련 인력, 자치회 임원 등 많이 많은 사람이 주로 참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시부야의 인구는 20만 명 정도인데 매년 유입되는 인구가 2만 명 정도이며 또한 그만큼의 숫자가 빠져나간다. 그만큼 인구의 유동성이 높은 지역이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상 젊은이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강습회의 정보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강습회의 경우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사업은 흔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구청과 시부야대학의 협력을 통해 다른 기관에서 제대로 해 본적이 없는, 도시의 커뮤니티의 실체를 파고들어 거버넌스 사업을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구청의 위탁으로 진행한 방재 체험 프로그램을 1박 2일동안 야외에서 진행했다. (출처: 디자인빌리지스튜디오)

○ 기업

시부야대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Vision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으로 삼고 있다. <기업과 개인의 지원·소개를 통해 시부야의 거리를 활성화 합니다. 시부야의 자원을 살린 산관학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그래서인지 시부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과 시부야대학은 상호 윈윈 지점을 찾아 다양한 방식의 협력사업을 꾀하고 있다.

단순하게는 양 기관이 협력하여 강좌를 만드는 것이다. 기업은 최신 트렌드와 정보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부야대학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콘텐츠를 일반 시민에게 연결하고 싶어 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배움이라는 중립적 틀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기업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어 한다.

TOKYY HANDS라는 전문 유통회사에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많은 강좌를 개최하였는데, 이곳에서 근무하는 후루쇼 씨는 이런 NPO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매장에서도 가끔 미용과 공작 등의 교육을 직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판매자와 손님이라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부야 대학의 수업에서는 강사나 학생들이나 거리감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수업이 이뤄집니다.”

단순한 강좌를 넘어 지역의 축제를 기업과 함께 기획하여 진행하기도 한다. 시부야에 있는 에비스라는 지역은 패션과 음식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런 측면만으로는 집객을 확보 할 수 없게 되어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라는 상업시설에서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하지만 생각한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지역과 조화를 이루면서 브랜드를 구축하고 전체를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고, 시부야대학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역 활성화를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양자가 윈윈 지점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 접점이 2011년 10월에 개최한 <에비스 문화제>이다.

<에비스 문화제>는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가 주최하는 행사이며 시부야대학이 기획 협력하는 형태로 참여하게 되었다. 시부야대학은 축제의 전략을 주민들이 '즐거달라'가 아니라 '참여하자'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작성했다. 예를 들어, 지역 초등학교 합창단,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모니카 클럽의 연주회, 남성만의 작품전 등.....

"설립 30년이 지났지만 이런 이벤트에서 불러준 것은 처음이다."라고 한 취주악 악단도 있었는데 당일에는 악단 초기 멤버들도 참여해 감격스럽게 연주를 듣기도 했다.

이 행사에는 시부야대학의 동아리 중 하나인 '싱 에비스'라는 합창단의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400명 정도 되는 합창단 멤버들이 플래시몹을 해보고 싶어해 지역 축제에 용기를 내서 도전하게 되었다. 이 플래시몹은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극단의 연출가가 자원활동가로 참가해 연출을 맡았고, 참가자들의 대부분이 회사원인지라 한 달 내내 퇴근 후에 모여서 연습을 할 정도로 다들 열심히 준비를 했다.

당일 플래시몹 축제는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에서 진행했고 평소 이곳에 쇼핑을 하러 온 사람들 뿐 아니라 합창단에 참가한 사람들의 친구, 가족, 친척들도 함께 했다. 다들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흑시라도 실수하지 않을까 조마조마 하면서 지켜보았으며 합창 중에 무대에 올라 홀라 댄스를

추는 분들도 있었다. 그분들도 지역에서 훌라 댄스를 배우고 있는 분들이었다. 그리고 축제 엔딩에는 모든 공연팀과 사회자, 주민들이 합창을 하며 지역 축제를 함께 나눴다.



▲에비스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싱 에비스’ 회원들 모습 (출처: 디자인빌리지스튜디오)

○ 정규 학교와 NPO, 기업과의 연결

시부야대학 홈페이지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 “초등학생을 위한 대학이 되겠습니다. 중학생을 위한 대학도 되겠습니다.” 시부야의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요청을 받아 기업과 NPO를 연결하는 새로운 수업 프로듀스를 하는 것이다.

시부야대학은 초기에 시부야구청 건물에 사무실을 두었지만 2010년에는 새로운 곳으로 동지를 옮겼다. 그만큼 지역의 기업이나 NPO와의 협력사업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시부야대학은 서로 연결고리가 전혀 없던 각 기관을 이렇게 연결하여 지역을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크로 엮어 나가고 있다. 이런 강좌를 통해 아이들은 기업체를 방문해 직접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소리와 냄새를 알게 되고, 엄마 아빠가 일하는 곳을 가까이에서 직접 보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NPO에 참가해 경험을 함으로써 시민사회에 대해 친숙함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능한 신선한 방법으로 ‘살아있는 사회’를 만나게 하는 것이다.

■ 시부야 미래를 위한 준비

○ 시부야대학 퓨처 세션

시부야대학의 강좌는 대체로 단발성으로 끝나는데 ‘시부야대학 퓨처 세션’같은 경우는 격월로 5회 동안 진행되기도 한다. 이것은 강좌라기 보다는 시부야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워크숍이다.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에서는 제대로 된 토론이 진행될 리 없다. 그러나 퓨처 세션에서는 상호

평등한 입장에서 각자가 처한 위치나 가치관 지식에 따라 각기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면서 풍성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이처럼 퓨처 세션은 대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열린 공간이다. 그렇다고 단지 토론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다. 참가자 마다 각자 시부야의 미래를 위해 아이디어를 쏟아 내고 그 아이디어를 다시 그룹핑해서 그룹별 토의 후에 액션 플랜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그 액션 플랜은 상호 검증과 토론 그리고 더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보다 세밀한 액션플랜으로 성장되어 간다. 실현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 이렇게 되면 참 재밌겠네’라는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다양한 입장에서 보완하며 액션 플랜을 짜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지금의 상투적 시부야 관광지 대신 새로운 놀이를 통해 시부야를 새롭게 변신시키고자 하는 ‘시부야 놀이’ 프로젝트부터 사람들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성적 소수자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Queer&Ally’까지 총 10개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졌다.

퓨처 세션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가치와 관심에 따라 프로젝트에 결합을 할 것이고 프로젝트는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한 활동을 할 것이다.



▲시부야대학 퓨처세션에 참석한 사람들의 다양한 참여 모습 (출처: 디자인비리시스틀)

○ 모두가 꿈꾸는, 이것이 시부야의 미래예상도

이것도 수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워크샵이다. 그러나 위의 퓨처 세션이 중국에는 액션 플랜으로 귀결되는데 반해 이 워크샵은 그 보다는 훨씬 자유롭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고 특별한 액션 플랜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다만 자신이 살고 싶은 혹은 만들고 싶은 도시에 대해 자유롭게 제기하고 참가자들과 진심으로 소통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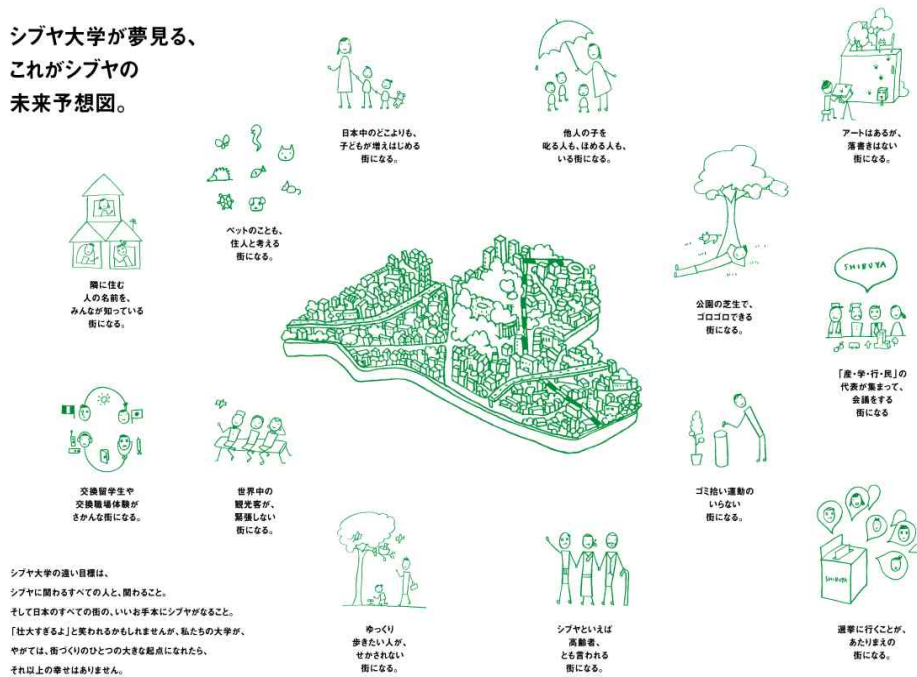
우리가 꿈꾸는 도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몇 년 혹은 몇 십 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 도시는 사람의 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인지 생각해 보고 그것을 위해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워크샵은 이런 중요

성과 의미가 있기에 시부야대학 학장인 사쿄 씨가 직접 워크숍을 주관한다. 그리고 이 워크숍을 통해 모아진 시부야의 미래를 그림으로 도형화하여 2013년 9월, 창립 7주년이 되는 기념행사에서 공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실상 ‘시부야의 미래예상도’는 시부야대학 창립 초기에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관계자 몇 사람의 생각을 반영한 것뿐이다. 그래서 사쿄 씨는 창립 6년이 경과하였으니 이제는 보다 많은 시부야 사람들과 함께 시부야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꿈을 꾸고 싶어 한다.

이 꿈이 언제 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서로가 꿈꾸는 미래예상도를 자신의 사무실이나 거실에 붙여놓고 그 생각을 잊지 않으면서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그 꿈은 곧 현실로 변할 것이다.

シブヤ大学が夢見る、
これがシブヤの
未来予想図。



▲시부야대학 창립 초기 관계자들의 생각을 모아 그린 시부야 미래예상도 (출처: 시부야대학 웹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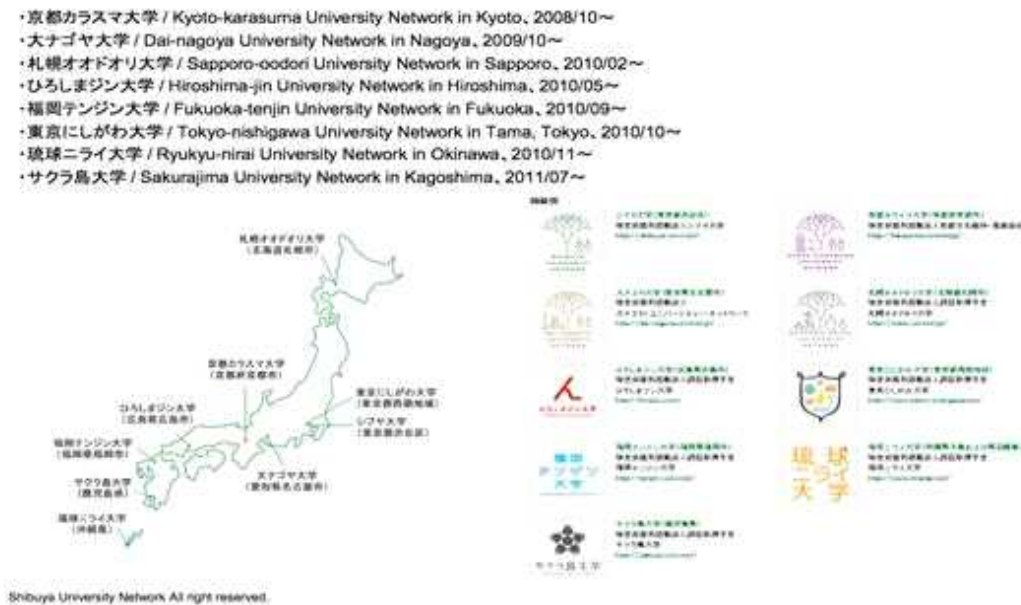
6. 시부야대학의 미래

시부야대학이 향후 어떤 행보를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현재 수입구조에 있어 기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재정적 측면에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고 다행히 개인후원제도의 활성화로 연착륙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시부야대학의 공간 활동에 대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고 여전히 참가율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사회적기업의 경우 3년 안에 70%이상이 문을 닫고 10년을 지속하는 조직은 10%미만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7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시부야대학은 어느 정도 안착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시부야대학과 같은 모델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도시가 속속 늘어나고 있다. 일본 전역에서 100여건의 문의와 접촉, 세계 각지에서 20여개의 나라에서 컨설팅을 받았다. 그래서 시부야대학에서는 아예 ‘시부야대학을 만드는 방법 학과’라는 세션을 별도로 만들었다. 시부야대학에 대한 ‘노하우 전수’가 아니라 ‘노하우 공개’를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전역에 시부야대학 자매교 8곳이 분포되어 있다. (출처: 시부야대학 웹사이트)

시부야대학은 ‘지역밀착형 평생학습’을 자기 정체성으로 하고 있지만, 이때의 학습은 단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학습을 매개로 한 관계의 형성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관계망을 통해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 강사로 또는 학생으로 참여하여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나누면서 새로운 학습생태계를 만들고 이런 생태계가 결국 지역변화의 동력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의 시대를 일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별첨1

일본 시부야대학 리플릿



特定非営利活動法人シブヤ大学
東京都渋谷区宇田川町5-2渋谷区神南分庁舎2層
<http://www.shibuya-univ.net>

시부야대학
보이지는 않지만, 그 곳에 있습니다.



遊ぶのが
いちばん楽しい街は、
学ぶのが
いちばん楽しい街になれる。

「日本の教育ってどうなんだろう」という想い。
「シブヤって、ホント面白い人がたくさんいるなあ」という想い。
ふたつの想いは、それぞれバラバラにあったけど、
このふたつをくっつけてみると……。
地域密着型の新しい教育のカタチは、
各地で少しずつ生まれているけれど、
これをやるならシブヤほど可能性を秘めた街はないんじゃない？
シブヤ大学の構想は、その気づきからスタートしました。

**가장 즐겁게 놀 수 있는 거리가,
가장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거리가 된다.**

“일본의 교육은 어떨까?”라는 생각.

“시부야는 정말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

이 두가지 생각은 각기 따로따로였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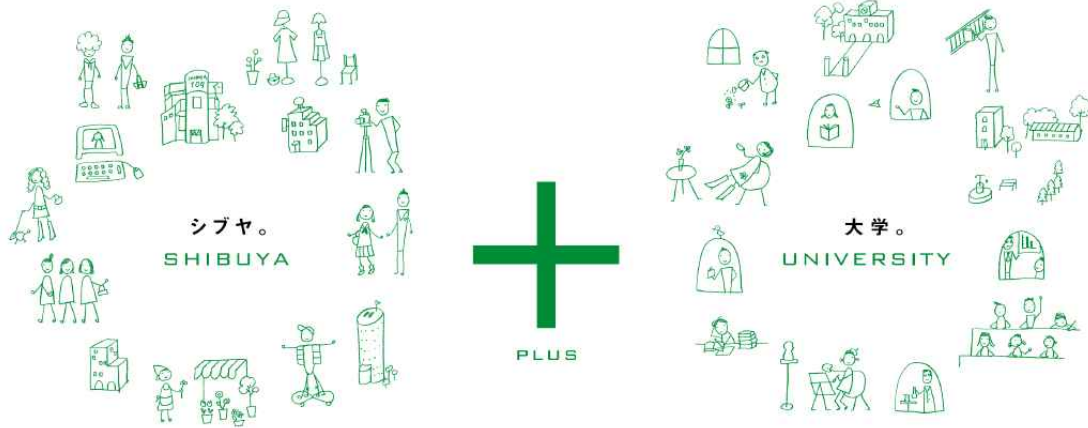
이 두가지를 합쳐보면...

지역밀착형의 새로운 교육의 형태는 곳곳에서 조금씩 생겨나고 있지만,

이러한 시도를 한다면, 시부야 만큼이나 가능성을 지닌 거리는 없지 않을까?

시부야대학의 구상은 그렇게 떠오르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シブヤ」のいいところと「大学」のいいところ、
 どちらも取り入れる。
 私たちの名前は、そのまま私たちの理念です。



そこには、新しいお店や、新しいカルチャーや、
 新しいビジネスが生まれています。
 あらゆるジャンルの若々しいエネルギーが集まって、
 つねに何かが生み出されているこの街は、
 つまり、他には例を見ないほど「魅力的な人」の宝庫なんです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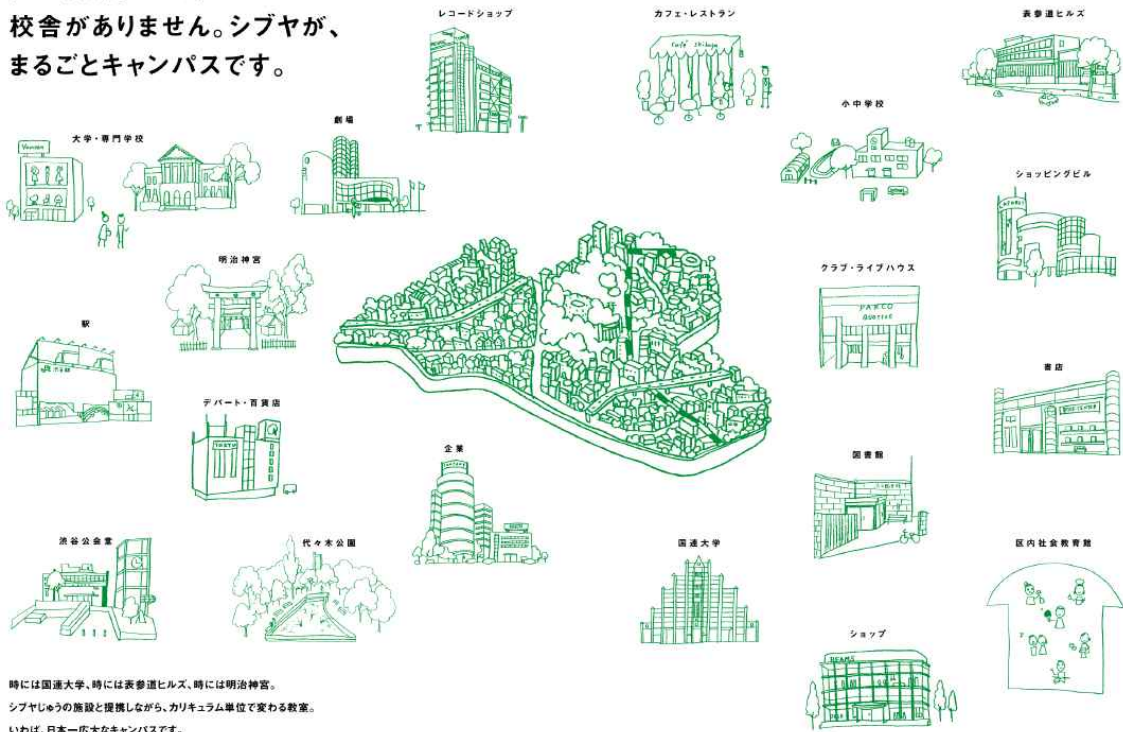
そこには、「お金」とは別の価値観があったり、
 世の中よりゆっくりに時間があったり、広々とした空間があったり、
 そういう場所だからこそできる研究や教育があったり……。
 知性や好奇心に対する雄大なスタンス、学びたいなと思いました。

“시부야”의 좋은 점과 “대학”의 좋은 점,
 어느 쪽이든 받아들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은 바로 우리들의 이념이기도 합니다.

그 곳에는 새로운 가게나 새로운 문화,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모든 장르의 젊음에 찬 에너지가 모여,
 항상 무언가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 이 거리는,
 바로 다른 곳에서는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매력적인 사람”의 보고입니다.

그 곳에는 “돈”과는 다른 가치관이 존재하거나,
 세상보다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이 있기도 하고,
 넓고 탁트인 공간이 있거나,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연구와 교육이 있기도 하고...
 지성과 호기심에 마주하는 웅대한 자세,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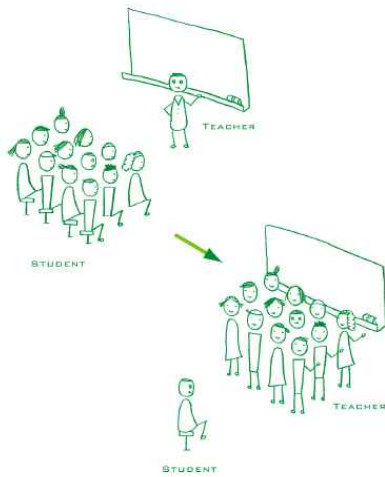
シブヤ大学には、
校舎がありません。シブヤが、
まるごとキャンパスです。



시부야대학에는 교실이 없습니다.
시부야 전체가 바로 캠퍼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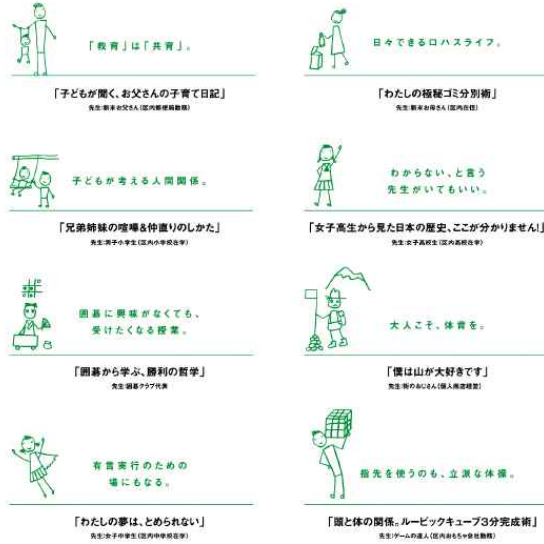
때로는 고쿠렌대학, 때로는 오모테산도힐즈, 때로는 메이지신궁.
시부야 안의 시설들과 연계하며, 커리큘럼에 따라 달라지는 교실.
이렇게하면, 일본에서 가장 넓은 캠퍼스입니다.

シブヤ大学の場合、
生徒は、先生にもなれます。



教える人は生涯教える人。教わる人は生涯教わる人。
役割の決まりきった教育ではなく、
「教える」と「教わる」を自由に行き来できる教育。
考えてみてください、教えるとなったら、ものすごく勉強してしまうだろうし、
教えることで、はじめて教わることもきっと沢山あるはずです。

たとえば、こんな授業に
な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渋谷区に住んでいる人か、渋谷区で働いている人から、
年に数回、HP上でユニークな授業を公募。
この垢に貼っている「才能」や「経歴」をつねに発掘していきます。
審査委員会による審議後、面談を経て、晴れて先生に。

シブヤ大学の 경우,
학생은 선생님이 되기도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평생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은 평생 배우는 사람.
정해진 역할이 있는 교육이 아닌,
가르침과 배움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교육.
생각해 보세요. 가르치게 된다면 공부에도 열의를 갖게 될 것이고
가르침으로써, 비로소 배우게 되는 것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수업이 되지 않을까요?

“교육”은 “함께 크는 것”
아이들이 듣는 아버지의 육아일기
선생님: 초보아빠 (구내 우체국 근무)

아이들이 가르치는 인간관계
“형제자매 싸움 & 화해방법”
선생님: 초등학교 남학생 (구내 초등학교 재학)

바둑에 흥미가 없어도 듣고 싶은 수업

“바둑에서 배우는 승리의 철학”

선생님: 바둑반 대표

유연실행을 위한 자리가 되다.

“내 꿈은 멈출 수 없다”

선생님: 중학교 여학생 (구내 중학교 재학)

매일 할 수 있는 로하스라이프

“나의 극비 쓰레기분리 기술”

선생님: 초보엄마 (구내 거주)

모른다고 하는 선생님이 있어도 된다.

“여고생이 본 일본의 역사, 여기를 잘 모르겠다.”

선생님: 여고생 (구내 고등학교 재학)

나는 산이 아주 좋아요

선생님: 마을 아저씨 (개인 상점 경영)

손가락을 사용하는 것도 멋진 체조

“머리와 몸의 관계. 루빅큐브 3분 완성술”

선생님: 게임의 달인 (구내 장난감회사 근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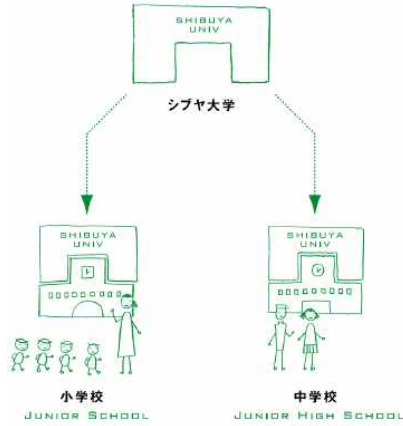
시부야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시부야구에서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 몇 회,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한 수업을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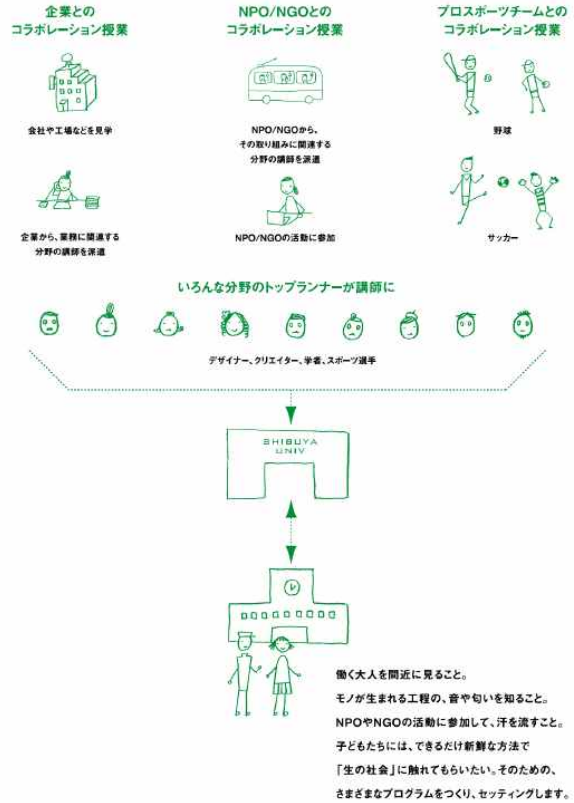
이 거리에 잠자고 있는 “재능”이나 “경험”을 항상 발굴해 나갑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면담을 통해 정식 강사로.

小学生のための、
大学になります。
中学生のための、
大学にもなります。



渋谷区内の小学校や中学校からの要請を聞き、
シブヤ大学が、かつてない授業をプロデュースします。
企業とのコラボレーション授業あり、
NPOやNGOとのコラボレーション授業あり……。
くわしくは右ページをご覧ください。



초등학생을 위한 대학이 되겠습니다.
 중학생을 위한 대학도 되겠습니다.

시부야구의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요청을 받아,
시부야대학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수업을 프로デュ스합니다.
NPO나 NGO와의 협력 수업도 있고...
자세한 사항은 오른쪽 페이지를 봐주세요.

기업과의 협력 수업
회사나 공장을 견학
기업에서 업무 관련분야의 강사를 파견

NPO/NGO와의 협력 수업
NPO/NGO에서 관련 사업분야의 강사를 파견
NPO/NGO 활동에 참가

프로스포츠팀과의 협력 수업

야구 축구

다양한 분야의 선두주자들이 강사로

디자이너, 크리에이터, 학자, 스포츠선수

일하는 어른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는 일.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소리와 냄새를 알게되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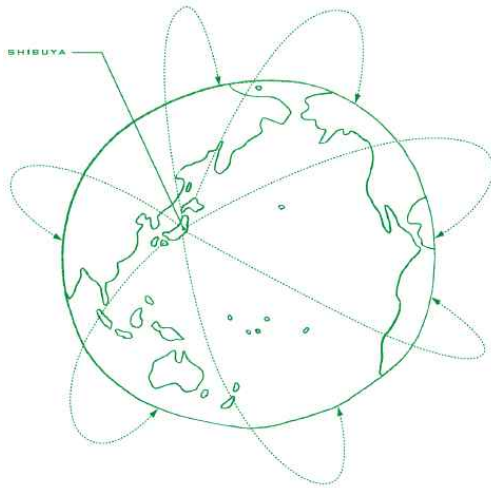
NPO나 NGO활동에 참가하여 땀을 흘리는 일.

아이들에게는 가능한 한 신선한 방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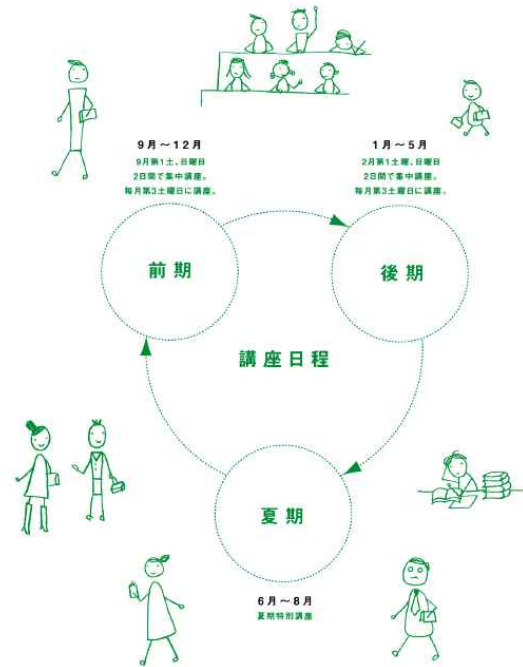
“살아있는 사회”를 만나게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추진합니다.

ちょっとだけ、
胸を張れる
特別講師陣です。



渋谷との関わりが深い、
いろいろな分野のエキスパートたち。
『日本の未来は、シブヤから生まれる』
私たちのそんな想いに賛同し、
『やってもいいよ』と答ってくれる方たちが、
いま現在、これだけ揃いました。



조금은 가슴을 펼 수 있는 특별강사진입니다.

시부야와 관련 깊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일본의 미래는 시부야에서 시작된다”
우리들의 그러한 생각에 뜻을 함께하고,
“해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9월~12월

9월 첫째주 토, 일요일 2일간 모집강좌. 매월 3째주 토요일에 강좌.

1월~5월

2월 첫째 토, 일요일 2일간 모집강좌. 매월 3째주 토요일에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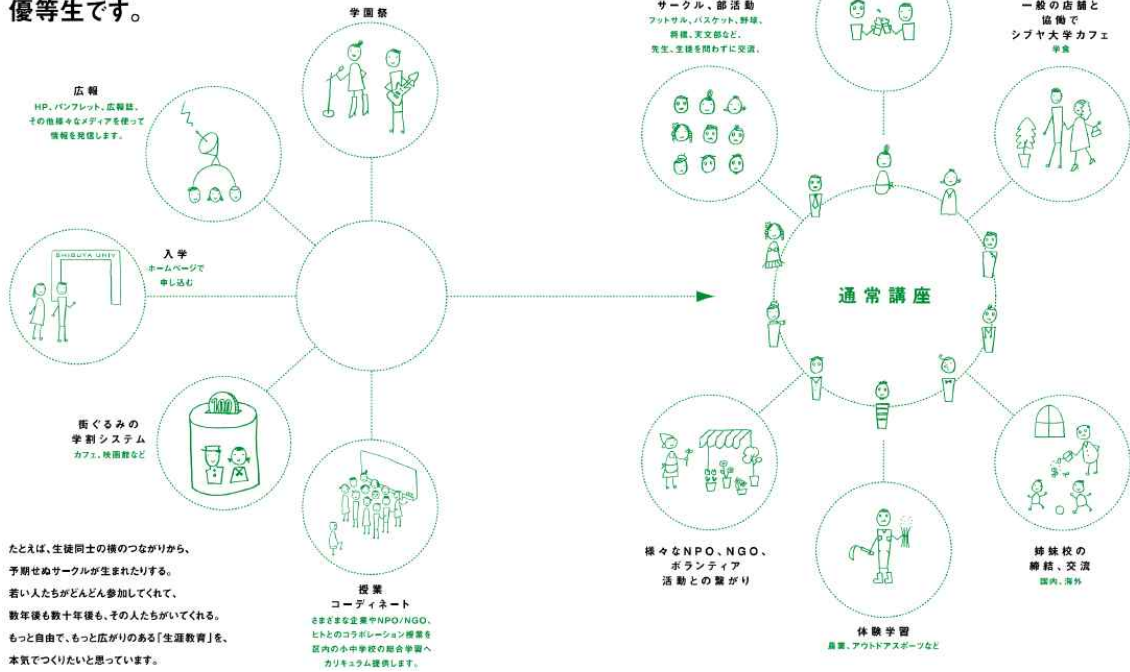
6월~8월

하기특별강좌

전기, 후기, 하기

강좌일정

いつまでたっても卒業しない。
それがきっと、シブヤ大学の
優等生です。



언제까지라도 졸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시부야 대학의 우등생입니다.

홍보
홈페이지, 핸드북, 홍보지, 기타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교축제

입학
홈페이지에서 신청

마을전체 할인시스템
수업 코디네이트
다양한 기업과 NPO/NGO, 사람들과의 협력수업 커리큘럼을 구내의 초중학교 종합학습에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 사이의 교류를 통해
생각지도 못한 동아리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참가가 늘어나고,
몇 년 후에도 몇 십년 후에도 그 사람들이 있어줍니다.
좀 더 자유스럽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을 진심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시부야대학 선생님들끼리의 유대관계

동아리, 부활동
풋살, 농구, 야구,
장기, 천문부 등
선생님, 학생을 불문한 교류

여러 NPO, NGO,
자원봉사활동 등과의 관계

체험학습
농업, 아웃도어스포츠 등

자매학교 체결, 교류
국내, 해외

일반 점포와 협동으로 운영하는 시부야대학 카페
학생식당

쓰레기줍기 운동이 필요없는 마을이 된다.
선거하러 가는 것이 당연한 마을이 된다.
“산·학·행·민”의 대표가 모여 회의를 하는 마을이 된다.
공원의 잔디밭에서 느긋하게 쉴 수 있는 마을이 된다.
예술은 있지만, 낙서는 없는 마을이 된다.

あなたがいれば、
カタチが変わる。
シブヤ大学は、
ネットワークですから。



「シブヤ」と「大学」
ひよんなことから、ふたつをくっつけてみると……。
「あれもできる」「これもできる」と一気にアイデアが広がって、
それが驚くほど順調に、ひとつの事業になりました。

2006年9月は、シブヤ大学の完成ではなく、あくまでもスタート地点。
これからも、いろいろな々に参加してもらうことで、
カタチを変えていきたい私たちです。

見えないけれど、そこにある。
シブヤ大学、開校。



당신이 있으면
모습이 바뀝니다.
시부야대학은
네트워크이니까요.

“시부야”와 “대학”

조금은 엉뚱한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아이디어가 단숨에 펼쳐져

그것이 놀랄만큼 순조롭게 한 개의 사업이 되었습니다.

2006년 9월은 시부야대학의 완성이 아닌 어디까지나 출발 지점.

앞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의 참가를 도모함으로써

변화를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들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곳에 있습니다.

시부야대학, 개교.